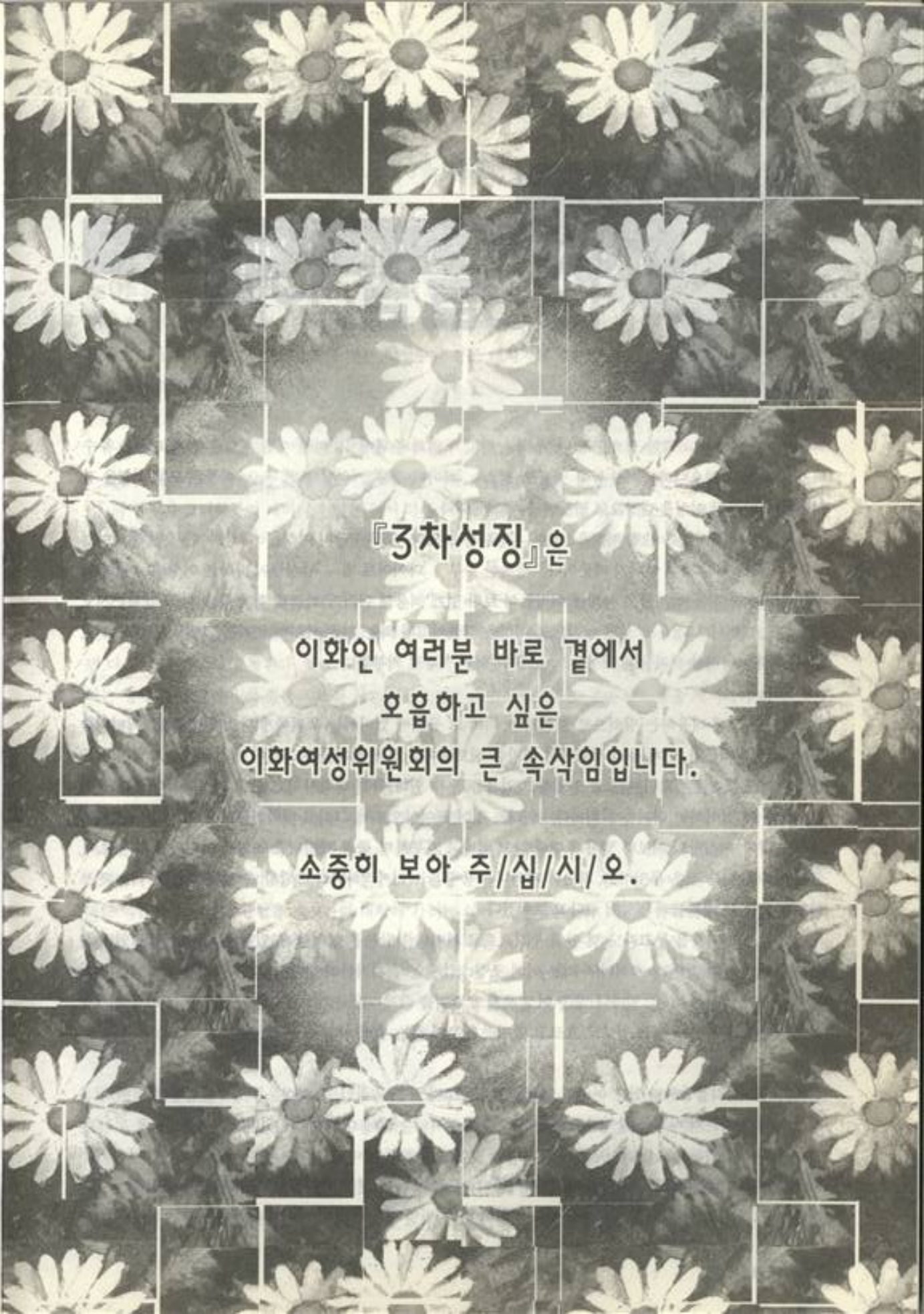




3차 성징

이화를 고민한다

2대 이화여성위원회



『3차성징』은

이화인 여러분 바로 곁에서
호흡하고 싶은
이화여성위원회의 큰 속삭임입니다.

소중히 보아 주/십/시/오.

3차성정을 발간하며

여론 / 2대 이화여성위원회 위원장

굳이 어디에서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위에서 '여성'이란 이름을 건 잡지들을 무수히 많이 접하고 있으니, '여성 동아', '우먼 센스', '레이디 경향', '워킹 우먼' 이들은 모두 여성용 잡지들이며,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 책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책자들은 분명 여성을 '위한' 것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여성을 '대상화' 한 것일 뿐, '여성의 눈'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주부', '다이어트 법',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 10' 등의 기사들로 채워진 이들 잡지들은 사회에 여성들이 보다 쉽게 적응해 나가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말합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길들이고자 하는 기존 사회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책자들이 여성을 노예화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읽혀지는, 이미 그 용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소 친숙해진 '페미니즘'들은 어떠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웬만큼 진보적이라 하는 책자들은 그것이 정기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적어도 몇 번은 '페미니즘'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사회, 그리고 여성학의 메카라 불리는 '이화'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적어도 여성으로서, 그리고 대학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페미니즘에 대해, 여성학의 계보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종종 페미니즘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현재 이슈화 되는 것은 무엇이고, 최근의 페미니즘 동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진보적 담론을 싣는 매체들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라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 그것은 이러한 페미니즘 논의들이 우리가 예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와는 별도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이다.

페미니즘은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 즉 여성운동에서 출발한 것이며, 담론 생성 자체가 기존의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논리에 대한 반발이었다. 즉, 여성해방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방법론으로서 페미니즘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이론은 맑시즘과 마찬가지로 사회학, 정치학의 영역을 포괄한다. 이처럼 페미니즘이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론이라면, 그것은 그 담론 자체로서 운동성을 지녀야 한다. 만일 행동과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담론이라면, 그것

은 이미 기존 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힘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소통되고 있는 페미니즘 논의들의 일부는 그 운동성을 잃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의 입지와 페미니즘 담론을 싣는 매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는 여성주의 담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해 하나 하나 고찰해 보고, 이화에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서 페미니즘 담론을 생성해 내는 여성주의 전문 매체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고민한 페미니즘 담론과 매체지의 역할은 이러하다.

일단, '여성주의' 시각을 전지하는 전문적 페미니즘 담론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입지가 그러하듯이 페미니즘 담론 역시 다른 여타의 담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가볍게 치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여성운동이 사회에서 부문운동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 담론이 그것이 그 본래의 지향하는 바에 맞게 운동의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꾸준한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주의 담론이 그 자체로 실천력을 지니려면 다음의 몇 가지가 요청된다. 첫째, 여성주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초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변화하는 정세 속에 자신이 서 있는 지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발판으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 꾸준히 그 흐름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2대 이화여성위원회는 여성주의 전문 매체지 '3차성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화에서 여성담론만을 생성해 내는 전문 매체지가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매체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 '실천력'이라는 점에 대한 꾸준한 고민을 기치면서 '3차성정'을 만들어졌다.

페미니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존재하면서 그 이론을 주입시키는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억압에서 우리의 관점을 제시하여 대항해 가려는 살아 있는 담론이다. 페미니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읽혀지고 함께 고민해 가며,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는 '3차성정'을 발간한다. '3차성정'은 '여성주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이화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을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득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귀납적 방식) 여성주의 담론을 생성해 나아갈 것이며, 이는 끊임없이 기존의 세상에 대응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 내고 지속시켜 갈 것이다.

이제 막 창간호를 펴내는 즈음, 아직 미숙하고 그 기획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화여성위원회가 자치단위라는 위상으로 이화에서 매체지를 펴 낸다는 작업에 따르는 물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컸다. 그러나 이 작업이 우리가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스스로에게, 이화인 모두에게 던지면서, 앞으로 이화가 실천력있는 여성담론을 형성해 가는 데 한 몫을 하리란 기대를 해보며 기획의 글을 마친다.



No. 01

CONTENTS

정인희님의 작품입니다

'97 이화에서는... 이화가 고민했던 여성담론과 활동들

여성주의 문화담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사수한다. 8
사진으로 보는 2회 페미니즘 문화제 12

성폭력 담론 1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

다시 보는 고대성 집단성폭력사건 16
서울대 미팅제안업서건 26
한양대 미팅제안판지건 28
연세대 익명게시판사건 30

성폭력 담론 2

성폭력을 정의한다 32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의 38

여성연대를 외친다

들꽃모임에 대하여 44
1회 페미니즘 캠프 47
다시 쓰는 동화 '신 장화홍련전' 50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다시 미인대회 폐지를 주장하며 54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한다

50 정신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Cyber Space와 여성

66 Women In Cyber Space
72 Internet의 여성주의 site

일상에 시비걸기

78 통신 소리통
80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3차성징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 하나 하나 다양한 입지와 환경을 속에서도 여성이란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여성 억압의 경험들을 생성시켰으며, 이것을 3차성징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1997

3차성징

2대 이화여성위원회 총회기획 이화를 고민한다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88 Feminist Coming Out
91 이화인이 생각하는 여성운동과 이화여성위원회
96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이화를 고민한다 1

100 낙서로 보는 이화인
102 이화이데올로기
105 전문직 여성에 대한 환상
107 화장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들
111 졸업사진 No.9 "나는 오늘 모델같다는 말을 들었다."
114 여대에서 미팅은 0순위?

이화를 고민한다 2

금혼학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116 진정한 여성 교육이란? 금혼학칙 철폐를 요구하며
120 생각하는 동화 '병정과 성벽'

광고 / 신입위원 모집 98

위원소개 122

3차성징 이미지 123

격려의 말 124

편집후기 126



CONTENTS

'97 이화에서는 ...

이화가 고민했던 여성 담론과

활동들



97년 이화가 고민했던

여성 담론들과 활동들을 하나하나

되짚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화에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문화담론
성폭력 담론..I
성폭력 담론..II
여성연대를 외친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한다
Cyber Space와 여성
일상에 시비걸기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사수한다

2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기획하며

이화여성위원회

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여성억압의 가장 강력한 기제는 법이나 제도보다도 사회문화전반에 깔린 남성우월주의 의식이라고 지적한다. 문화 전반에서 소외되고 왜곡되어 평가되는 여성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억압 지점인 문화 영역 속에 뛰어들어 '여성'의 존재성을 알리고, 목소리를 키우며, 또한 '여성주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여 기존의 문화를 뒤엎는 적극적 활동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오늘 해 3월, 우리는 작년에 이어 2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이화에서 개최하였다. 세상에서 비주류집단으로 자리해 온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문화'라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장으로서 펼쳐진 문화제 행사는 이화인들에게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던지고, '여성문화창출'이라는 과제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의를 갖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화인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과 고민들, 그리고 이화의 가능성과 지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데에서도 그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화의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과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이화가 남성권력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 공간'이며 따라서 대안적 문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형이라는 점에서도 미리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사수한다

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면을 통해서는 문화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게 된 여성주의 문화담론이 맞닥뜨리고 있는 몇 가지 굴곡된 편견에 대하여, 우리가 문화제를 기획한 목적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려 한다. 이는 앞으로 이화에서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생성시키며,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로서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혹자는 여성주의 문화담론이 자본주의에 결탁하는 퇴폐적인 산물이라 평가절하하며, 또 어떤 이는 그것이 하층 여성들과 무관한 중산층 여성들의 엘리트 의식의 산물이라 말하기도 한다. 여성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지적이야말로 여성운동을 그 껍부터 말리려는 남성우월주의의 견해이거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이들의 편견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이 현재 대학사회에서 그리고 이화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활동을 펴 나감에 따라 깨닫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왜 여성주의 담론은 그토록 쉽게 상업화되거나, 소수 지식인들과 중산층 여성들의 향유 문화인 양 왜곡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상업화시키는 방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 것이며, 우리가 '문화'라는 것에 대해 갖는 편견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화장품과 의상 광고가 뒤덮고 있는 여성 잡지들을 제외하고라도, TV를 비롯한 대중매체들은 '여성'에 관련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데 뛰어난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페미니즘' 담론이 들어오

자마자 그것을 광고에 이용하여 하나의 변종 페미니즘을 생성해 내더니, 이제 유명 인사나 연예인, 모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란 성별을 지닌 이들에게 부과하는 카피들은 대개 '페미니즘'과 관련한 것들이 되었다. 광고, 책, 영화에 이어 최근엔 페미니즘 코미디라는 것까지 출현하고 있다.

왜 여성주의 담론은 그토록 쉽게 상업화되거나, 소수 지식인들과 중산층 여성들의 향유 문화인 양 왜곡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상업화시키는 방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 것이며, 우리가 '문화'라는 것에 대해 갖는 편견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사수한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지적하듯이 '페미니즘'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거론된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주의 담론이 이 사회에 정착해 가는 단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발간된 책들, 상영된 영화들, 그리고 성공한 여성의 후일담들은 '페미니즘'이란 용어로 포장되어 상업화하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도나 방식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여성주의적 관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페미니즘'은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여성'이 상품화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상품화되어 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기존의 논리가 '페미니즘'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페미니즘은 분명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무기일진대,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시각이 아닌, 남성권력의 시각을 통해 읽혀지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여성주의 문화담론이 지향하는 목적 의식과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에 관해서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사회 전반을 덮고 있던 경제 및 정치 이론과 활동이 일정한 영역으로 축소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투쟁의 영역으로서 문화라는 영역이 크게 열리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여성운동은 여타의 진보적 운동에 비해 빠르게 문화의 영역에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페미니즘이 여성억압의 원인으로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짚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 영역에서의 운동들을 활발히 진행시켜 온 서구 여성운동의 경험이 본보기로 존재한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운동의 문화 영역으로의 확대가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특수한 지형에 있었으니, 바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단순화 사고와 문화에 대한 편견이 그것이다.

우리는 문화라는 영역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언어·예술활동·행동양식·관습까

여성주의 문화담론을 사수한다

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리의 한 켠에서는 문화를 특정 계급이 향유하는 영역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로 사고하고, 또한 고급/저급의 이중법적인 구분 잣대를 들이대어 단순화 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페미니즘이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문화 전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오는 것과 관련하여, 한편에서 그것이 부르주아적이며 '여성'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여성주의' 자체가 쉽사리 기독교 세력의 논리에 의해 상업화되어지고,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존재하는 한 여성주의 문화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인 듯 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가 급격히 확장되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운동을 꾸준히 고민해 나가고 있다. 불과 12년 전부터 이화를 비롯하여 대학 여성운동전영에서 펼쳐 온 '페미니즘 문화제'는 바로 이 시기의 문화 정세 속에서 현재 대학사회의 지형을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운동의 방식을 결정하며 여성운동을 펼쳐 가려는 활동들이다.

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여성억압의 가장 강력한 기제는 법이나 제도보다도 사회문화전반에 깔린 남성우월주의 의식이라고 지적한다. 억압받는 우리의 삶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필요성과 나아갈 바이며 방식이기도 하다. 문화 전반에서 소외되고 왜곡되어 평가되는 여성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억압 지점인 문화 영역 속에 뛰

어들어 '여성'의 존재성을 알리고, 목소리를 키우며, 또한 '여성주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여 기존의 문화를 뒤엎는 적극적 활동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고 쉽게들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히 소외된 비주류 집단이며 문화 전반에 걸쳐 평가절하되는 존재이다.

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여성억압의 가장 강력한 기제는 법이나 제도보다도 사회문화전반에 깔린 남성우월주의 의식이라고 지적한다. 억압받는 우리의 삶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필요성과 나아갈 바이며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여성운동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주류가 아닌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삶의 경험은 분명 그 주변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각과 저항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 '주변인'으로서의 여성의 시각은 주류를 장악한 권력으로서의 남성의 시각과는 다르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 사회에 주눅드는 약점이 아닌,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힘을 찾고자 작년에 이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일관된 기조로 2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성우월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을 여성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이화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2회 페미니즘 문화제

- 다음은 올해 2회 페미니즘 문화제 행사내용입니다 -

● 개막제

여성무용 살풀이(최은화 외)를 통해 막을 열고, 페미니즘 문화제 개괄과 개막을 선포했다. 후에 여성락커 황보령씨의 축하공연과 함께 연대의 장이 마련되었다.

● 여성주의 만화읽기

만화비평가 임정인씨와 현재 만화비평의 가부장적 시각을 비판하고 또한 기존의 만화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분석 해보며 앞으로 여성주의 만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여성주의 연극공연

여성주의 문화모임 '마녀'의 연극 <Coin Locker>를 공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기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회의해 볼 수 있도록 물음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 여성주의 문학

과연 여성주의 문학이 존재하는가, 여성주의 문학, 여성적 글쓰기 작업을 고민하고 있는 문학비평가 김양선씨와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성과 여성주의의 문제, 그리고 현 문학계의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여성주의 영화

'Antonia's Line' 상영 후, 영화문화비평가 김지혜씨와 함께 영화라는 매체가 갖는 여성주의에 대한 가능성과 기존 주류 영화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시각을 탈피한 여성영화의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보았다.





광고 하나 / 여성주의 모임을 제안합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 곳곳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여성담론을 생성해 나갈
여성학회, 여성소모임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모임을 만들어 볼 이화인, 그리고 함께 하고픈
이화인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 360-3562 이화여성위원회

성폭력 담론 1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



'우리 미망자'에 좋아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미팅제안편지 사건, 한양대 미팅제안편지 사건, 연세대 익명게시판 사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 때마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분개해야 했고 우리는 남성 중심적 그릇된 성의식에 부딪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 연이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우월적 성의식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서울대 미팅제안편지사건, 한양대 미팅제안편지 사건, 연세대 익명게시판사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 때마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분개해야 했고 우리는 남성 중심적 그릇된 성의식에 부딪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 연이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우월적 성의식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 다소 지친 호흡을 머금고 앞으로 도 계속될 일상속의 성폭력에 대해 더욱더 날카롭고 치밀하게 대응할 자세를 취한다.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서울대 미팅제안편지사건
한양대 미팅제안편지사건
연세대 익명게시판사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성폭력상담소
전화 : 360-356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화여자대학교 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97 이화대동계 우리손으로 지/켰/다

이화여성위원회

지난 111주년 이화 대동제는 그 이전의 대동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대동제였다. 이화의 대동제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속설을 깨고 3일 내내 비가 내려 게릴라식 장터가 진행되었는가 하면(이 때 이화여성위원회는 판매품목으로 팔빙수를 준비했다가 망했다는 전설이……) 늘 11시~12시가 되어야 끝이 나던 폐막제가 올해는 너무나 일찍 끝이 나 버린 것이다.

엘리제를 위하여

1.

(아홉살 때로 기억해)

고무줄을 찢아 먹자 히히히 재미있다.
치마를 들치자,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

행관치는 우리를 싫은 척하는 여자애들
알미운 오 알미운

(스무살때로 기억해)

엘리제를 부르자, 히히히 재미있다
치너지를 징복하자, 어흥, 엇차 엇차

행관치는 호랑이를 예타게 기다리는
귀여운 오 귀여운

2.

아름다운 처녀들

때묻지 않은 누이들
내 아내가 될 여자들

오빠가 널 괴롭혀 주고
오빠가 널 지켜줄 게

소유되지 않은 여자들
보호자 없는 그대들
울타리 없는 그대들

오빠가 널 괴롭혀 주고
오빠가 널 지켜줄 게

(위 시는 '꽃모임'에서 창출된 것입니다.)

'97이화 대동제 우리 손으로 지/켰/다

올해 대동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고대생집단성폭력없이 폐막제가 무사히 진행된 해로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다, 올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맞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남학생들이 삼삼오오 이화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 몇몇은 산발적으로 '고대'를 외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누군가 먼저 동을 떠주기를 기다리듯이 이화광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이화광장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들은 결국 서로 눈치만 보다 난동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칙칙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올해 이화광장에는 예년과 달리 고대생들을 스타로 만드는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이화인들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행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문침이, 지킴이, 영상이, 꼬우미 그리고 이대와 고대의 학생 교직원으로서 가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화를 졸업하신 선배님들, 교수님, 비번이셨던 수위아저씨, 이대알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의 언니들까지 모두 10년이 넘는 그들의 행태로부터 이화공간을 지키

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광장을 지켰던 것이다.

이화대동제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로 12년간이나 계속된 고대생집단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이화인의 대동제'를 치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뻐해도 될 듯 싶다. 그러나 한번의 승리가 다음의 '난동'의 근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생집단성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폭 떨어진 일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남성우월주의 문화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고 한번의 대동제 사수를 통해서 문화 자체가 바뀔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남성우월주의문화에 문제제기 해 나가면서 다음, 그 다음, 또 그 이후의 대동제가 다시 남생집단의 집단성폭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나마 96년, 이화가 고대생집단난동을 '성폭력'으로 재개념화시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후로 97년, 올해의 대동제까지 고대생집단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화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이화인들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고대생집단난동은 성/폭/력 이다.

— 용어의 재정의를 통한 이화의 문제제기

고대생집단난동은 '성폭력' 이다.

지난해 110주년 이화대동계에서 이화여성위원회는 고대생집단난동사건을 그렇게 정의내렸다. PC통신의 토론방에서는 이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응수했고 이화인들은 대략 두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이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폭력'임은 사실이지만 '성폭력'은 좀 심한 것 같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서 우리는 고대생집단성폭력이 가지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고대생난동은 분명히 성폭력이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기중심적으로 사고한다. 때문에 물리적인 성기접촉이 없는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순결'만 잃지 않으면, 물리적인 성기접촉만 없다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라고 규정해 놓았던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남성의 시점에서 사고되는 개념이고 피해자인 여성의 느낌이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을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사고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수잔 브라운 밀러는 강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몰아넣는 의도적인 위협행위'라고 정의한다.

고대생집단성폭력은 그 주체가 남성이고 그 대상이 여성이며, 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여성들만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이화대동계에서 집단난동을 벌이는, 벌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화가 바로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상공간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산다. (일상공간은 남성공간이다. 일상공간의 권력의 주체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의 공간에서 구타나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신체적 물리력에 의해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사회적으로 주어진 권력의 우위,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화라는 공간 안에서 용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으로 자유로운 이화공동체라는 여성공간은 침해당하며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때문에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 집단에 의해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가해진 의도성 짙은 위협행위이며 폭력행위이다.

이화여성위원회는 지난해 대동계 마지막 날인 29일,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고대총학생회는 공식적으로 불참선언을 하고 변영주감독과 동상에 인권운동가 서동진씨, 1대 이화여성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화인들은 그동안 개인적인 분노로만 끝이 나던 고대생집단성폭력의 경험을 함께 공론화시키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날도 어김없이 폐막제가 진행되는 하오 6시부터 고대생들이 이화광장 전체를 점거, 집단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고무장갑과 호루라기를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며 약 500여 명의 고대생들이 용원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내 이화광장은 난동을 부리는 남학생들로 가득찬다. 이후 이들은 일시 해산했다가 다시 운집, 기차놀이 대형으로 이화지킴이들의 저지선을 뚫고 운동장에 촛불을 켜고 울음을 하던 이화인들의 대열로 무작정 돌진하였다. 이들은 그대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기를 3회 거듭하고 다음 행사를 위해 설치되었던 무대 하반부의 절반을 부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학과 한 학우

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많은 이화인들이 넘어져 팔과상을 입거나 깔려 밟혀서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약 10시 30분 경까지 운동장 재진입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다 해산하였다.

고대생집단성폭력은 그 주체가 남성이고 그 대상이 여성이며, 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여성들만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이화대동계에서 집단난동을 벌이는, 벌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화가 바로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대생들은 우선 영산줄다리를 위해 열을 지어있던 이대 학우들 사이를 치고 달리며 심지어는 가에서 있던 한 학우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약 3미터는 끌려다녔다) 나는 지킴이 친구들과 팔을 끼고 그들을 막던 중 내 위로 고대생들이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안경과 모자가 벗겨지고 너무 당황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즐기며 통쾌해 했다.

(법학과 96학번, 96년 대동계 피해사례 중에서)

30일 새벽부터 각PC통신 상에 비난의 글이 폭주하였고 이대총학생회와 이화여성위원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대총학생회·이화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민족고대로 표방되는 남성패권주의적 폭력문화가 여성문화로 상징되는 이화대동계라는 문화공간으로의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결정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하였다. 이후 이화인들의 대동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6월 3일 이화광장에서 고대생집단성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4일부터 생협에서 사건당시를 촬영한 비디오테일 상영이 진행되었고, 5일 고대 학생관앞 민주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이대 여성위원회, 고대 여학생위원회, 이화총학생회,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이화여대는 민족고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 고려대학교 총장과 총학생회 명의로 5대 일간지에 공개사과문 게재
- 주동자 및 공범자 확인과 학칙상 처벌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 고려대학교 자정대책 마련계획 및 시행약속, 그리고 내년 재발시 처벌 계획과 시행약속
- 여대를 비하하고 몰상화시키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막걸리 찬가의 금지

이후 고대총학생회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고대측은 광고게재시의 비용상의 문제로 공개사과

문 대신에 공동기자회견과 학칙상처벌요구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화측은 공동기자회견으로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자칫 가습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하였고 학칙상처벌 철회 또한 이화의 학칙처벌요구가 그 난동사건이 엄연한 잘못이라는 것을 고대 학교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대총학생회는 학칙상처벌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양교 총학생회의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고대대학교측은 중징계방침을 내리고 징계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고대측에서는 주동자로 지목된 6명 중 4명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봉사활동을, 2명은 방학 중 정학이라는 명분상의 처벌로 이 사건의 처벌을 마감하였다.

110주년 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화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몸짓이 어떤 식으로 소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대학사회가 성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의 기존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만하기는 할지언정 진보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화는 고대생집단성폭력이 단순히 양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인식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또 하나의 문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캠프' 등 여성모임에 이 문제를 알리고 여성학과 대학원생들의 논문발표를 통한 담론적 분석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갔다. 더불어 이화여성위원회는 많은 대학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과 낭만적 사랑이라는 각본화에 왜곡되어 있는 남녀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타대학과 연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서울지역 약 15개 대학의 여성운동단위가 함께 하는 모임인 '들꽃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2) '97이화대동제, 우리 손으로 지/킨/다

-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전작업

작년 1대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난동이 단순한 '생판'이 아니라 남녀 간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임을 밝히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단순한 이대-고대 싸움이 아닌 민족고대문화로 표방되는 '남성패권주의 폭력문화'가 이화로 상징되는 '여성(여성문화)'에 대한 강제침탈의 상황이 악습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의 이화의 문제제기와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이 사건은 말그대로 '한때의 치기'나 '객기'가 아닌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우월주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화가 한번의 문제제기로 근절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고 그것은 작년의 사건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고대인의 시각이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성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이대총학생회와 함께 고대측에 4자회담(각 학교총학생회, 이화여성위원회, 고대여학생위원회)을 제안, 난동근절을 위한 공동논의와 실천계획을 가져왔다. 총 11차에 걸친 4자테이블에서 이대와 고대 측은 모두 고대생집단난동이 여대라고 하는 이화공간에 대한 고대를 대표하는 남성권력의 '집단적 성폭력이다'라는 공식적인 기조를 같이 하였으며, 이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양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데에 일치를 보아 학기초부터 학생회 행사에 이 내용을 담아내고 교양작업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화측에서는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의 교양작업과 함께 배달 발간되는 총학생회

매체지를 통해서, 고대측에서는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3월 신입생 환영제, 그리고 이후의 자보작업 등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교양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펴왔다.

이후 이화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고대생집단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대동제 전, 5월 한달간 이화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대생집단성

이화의 문제제기와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이 사건은 말그대로 '한때의 치기'나 '객기'가 아닌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우월주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화인 스스로가 이화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대생난동이 '한때의 치기'가 아닌 남성의 집단폭력문화라는 것에 동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 사건에 중심으로 결합할 이화인을 '몽침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고 이화전반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5월 19, 20일에는 교양대회를 개최하였고, 26일에는 '이화대동제 우리손으로 지키기' 전 이화인 결의대회가 이화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생협에서는 작년 고대생집단성폭력을 촬영한 비디오가 상영되었고 여성학과 수업과 대형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선전전이

당신이
고대생집단성폭력
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고대생집단성폭력 사건 10주년 기념 책

진행되었다. 한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인 토론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대동제에 들어서서는 몽침이와 함께 지킴이, 영상이, 꼬우미 등 대동제 자부단들이 함께 결합하여 3일간 이화광장과 운동장 주변의 순찰활동을 펼쳤다. 첫날 개막제에서는 고대생집단성폭력에 관한 몽침이들의 퍼포먼스가 있었고 마지막날에는 모든 자부단들이 폐막제에 참석하지 못하며 이화광장에 산발적으로 운집해 있는 남학생들을 감시하는 작업을 했다. 자부단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수많은 분들이 이화공간 지키기에 함께 해 주셨다. 고대여학생위원회

에서도 고대생집단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단을 만들어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자부단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이화광장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폐막제에 참석했던 이화인들 때문에 올해 111주년 이화대동제는 고대생들의 집단성폭력없이 '이화인의 대동제'로 끝을 내린 것이다.

3) 고대생집단성폭력과 관련한 이화인 설문조사

올해가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화인 자신들의 인식변화일 것이다. 올해 대책위의 기조가 '성폭력담론의 확산'이었고 이는 어느정도 달성된 듯이 보인다. 많은 이화인이 '성폭력' 기조에 동의를 하였으며, 최소한 올해는 이화광장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이화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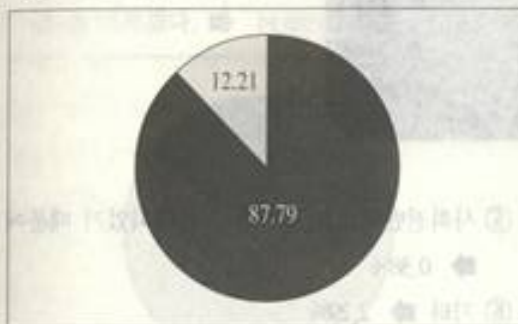
올해 111주년 이화대동제에는 이화가 타교에 행사를 개방한 이래 최초로 남성집단의 난동없이 무사히 치루어졌다. 이화여성위원회는 이에 작년보다 올해까지 펼쳐온 성폭력 담론의 확산과 대책활동에 대한 이화인의 대대적인 평가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대생집단성폭력에 대하여 이화인 설문조사를 펼쳤다. 이를 통해 올해의 대동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화인의 의견을 묻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방향까지 짚고자 하였다. 다음은 고대생집단성폭력과 관련한 이화인 설문조사 결과이다. (700부를 배포하여 총 536부가 수거되었다)

■ 인식도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⑥

1. 고대생 난동이 지난 12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실을 아십니까?

- ① 알고있다. 87.79%
② 모른다. 12.21%



2. 고대생 난동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직접 경험했다. 33.02%
② 선배나 친구에게 들었다. 41.41%
③ TV,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18.89%
④ 학내 홍보물(자보, 자료집, 비디오)을 통해 알게 되었다. 26.34%
⑤ 기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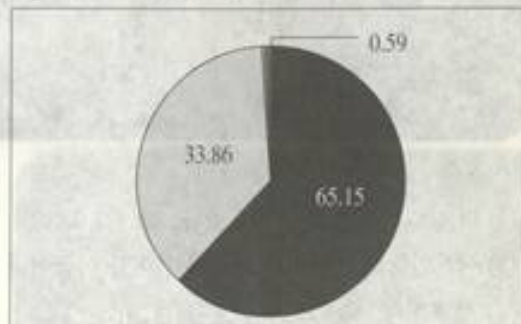
3. 작년에 이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공간에 가해진 명백한 집단적 '성폭력'이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

다. 65.19%

- ② 여성공간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성폭력'은 지나친 표현이다. 33.86%
③ 학생들의 단순한 해프닝이다. 0.59%
④ 잘 모르겠다. 0.39%



■ 대응과정에 있어...

4. 올해 이화여성위원회에서는 고대생집단성폭력에 대비해서 고대학생처와 학생회 측에 대책요구, 몽침이 활동, 생협 앞 자보와 비디오를 통한 선전작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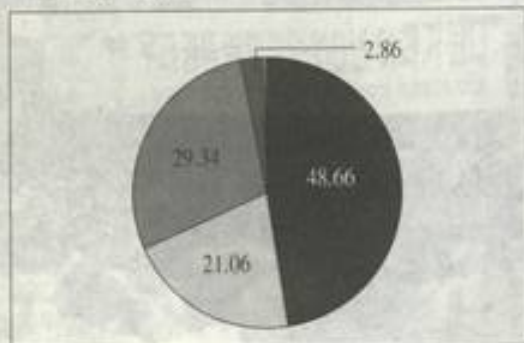
이러한 대응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효과적인 대응방법이었다. 48.66%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 사건



- ②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했다. 21.06%
- ③ 이화인들의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9.34%
- ④ 너무 과민하게 대응했다. 2.86%
- ⑤ 불필요했다.



5. 올해도 고대생을 비롯한 남학생들이 이화광장에 모였지만 예년과 같은 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뭉침이, 지킴이 활동 등 이화가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49.81%
 - ② 언론을 비롯한 압력 때문에 47.19%
 - ③ 교직원 및 수위들의 감시 때문에 5.73%
 - ④ 고대생들이 자체적으로 반성했기 때문에 5.73%

- ⑤ 사회전반적으로 성차별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0.38%
- ⑥ 기타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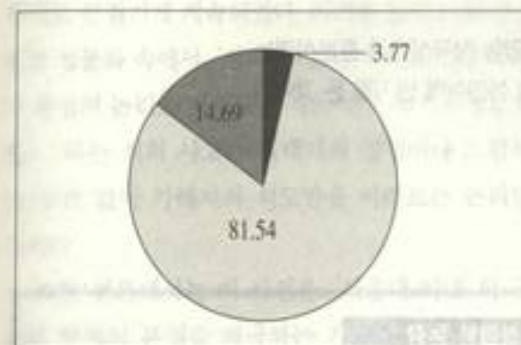
많은 수의 이화인들이 올해 대책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더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한 이화인들도 20%나 되었다. 또한 올해 난동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로 이화인의 대응을 가장 많이 지적인 점 등으로 미루어 이화인 스스로의 움직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의 성과를 이화인의 활동과 언론을 비롯한 압력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고, 고대생들의 반성이 있거나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인 수는 거의 없었다.

다시보는 고대생집단성폭력 사건

■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6. 고대생 집단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본다. 3.77%
 - ②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61번 문항으로) 81.54%
 - ③ 잘 모르겠다. 14.69%



- 6-1. 앞으로 이화가 고대생 집단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화인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내년에도 고대 학생회 및 학교 측에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이화인들이 올해와 같은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대책위, 뭉침이, 지킴이 등...)

재발시 강력한 학칙상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화인들이 고대생집단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떤 특정집단의 잘못을 떠나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만큼,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지는 않았다. 설문조사결과로 나타난 이화인들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화가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며,

대부분의 이화인들이 고대생집단성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화가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며, 그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이화인들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이화인들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111주년 이화대동제

우리손으로 지/켰/다/

서울대 미팅제안엽서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

이화여성위원회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남성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존재로써 여성을 사고하는 남성 중심적 성인식에 반기를 든 것이다.

PC통신서 이대-서울대 성희롱 논란

‘우리 미팅하자’에 ‘좋아요, 오빠?’

선정적인 포즈 담은 미팅제안엽서에 이대생 분노

지금 PC통신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화여대생들과 서울대생들의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미팅제안엽서건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석사 1년생들이 이대 신문방송학과 앞으로 단체 미팅제안 엽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선정적인 포즈의 여성을 결집한 미팅제안 엽서의 내용은 이렇다.

“Hi, Beautiful Girl! 우리 미팅하자. 여자는 이렇게 답한다. 좋아요, 오빠.”

이에 본개한 신방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엽서를 공개, 이대생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서울대 예뻐, 너희는 왜 그러니, 서울대엔 다지?” “어떻게 최고 학부를 다닌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니?” “정말 잘났어, 엘리트면 엘리트답게 읽고 반

성 중 해.” “같은 소수집단인 이런 자질성 폭력제들을 보면 거세하고 싶다.” “서울대... 교수도 그러하잖아. 우즈로 사건이 일어났잖아.”

이대생들의 ‘계본’에 비하면 서울대생들이 반증은 다소 취약하다.

“어느 집단이나 함양매달이 있듯 정신나간 서울대생이 한 명입니다. 소수를 가지고 전체를 대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 좋긴 좋아요. 그런 녀석도 다 알아주고 말이지.”

통신에서 격론이 벌어지자 좀더 논리적인 내용도 올라왔다.

“배를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이야. 하여튼 여자들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우리와 겨루고 싶었어. 가는 편일 나겠군.”

“배를계집애들한테서 그런

노! 직들도 좋으면서 괜한 부정은...”

간단하게 이대생들의 목소리와 통신에 올라온 글들을 옮겨놓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별문대생의 좀 된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대 여성위원회는 “비악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 이번 엽서사건의 핵심은 엽서를 보낸 한 남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되기까지 하는 포르노화된 여성비하의식에 있다”고 평가하고 “이화인의 분노를 서울대 학우들을 향해 서한 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또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의적 때문에 엽서를 보낸 그 학우도 그리고 수많은 남학생들도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서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불균형적이고 왜곡적인 성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사회적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 끄집어 내어 공적인 공간에서 물상적인 성담론을瓦解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신방과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팅제의 엽서라는 형식으로 우연히 표출된 대학가의 비뚤어진 성문화”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진보적이어야 할 대학에서조차 잠재해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의 자세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의 성담론이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건장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서울대 미팅제안엽서건

의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작년 4월 ‘서울대 미팅 엽서사건’은 4대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대자보 지면과 통신문의 토론장을 통해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한 이대 측의 대응에 대해 ‘남학생들의 객기어린 장난에 대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는 고대생집단성폭력사건때와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남성중심적 성문화 속에서 ‘성희롱’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즉 ‘그 정도로 뭘...’ 하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과는 상관 없이 가해자의 의도만을 바라보는 논리인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서울대-이대’의 구도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를 실기도 하는 바람에 두 학교간의 감정싸움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은 남성들의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일 것이다.

서울대 공대에서 보내온 엽서에 깔려있는 그림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준 포르노급의 잡지에서나 나올 듯한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 그림이었다. 미팅을 주제로 하는 이 엽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미팅에 나올 여성의 조건은 복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지니고 있고 남성에게 섹스어필 할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 그리고 남성의 제안에 교태로운 자세로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여자여야 한다.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포르노의 각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그 엽서를 보낸 한 남학생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향한 것이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저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여성을 사고하고 있는 포르노화된 여성 비하의식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성(性)은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며 고정불변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구조의 관계망 속에 얽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정한 서울대생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이 사회가 공고히 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인식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불균형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성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 끄집어 내는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적인 공간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

’96 이대 정문 백지 대자보

참을 수 없다 제발 속 시원한 대책을.....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세상인데.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나아가 여성에 대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모두들 너무나 분개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면 이 일이 얼마 동안의 기억효과를 일으킬지, 몇 사람이나 지속적인 관심과 생각을 해 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전반에 흐르는 성풍조의 한 단면으로 이 사회를 개선해야 할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쉽다.

하나의 발언은 그들의 밑에 있는 기저의 생각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이화인은, 여성은 모두 분노합니다.

한양대 미팅제안편지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

이화여성위원회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린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폄하적인 성의식이 반영된 명백한 성폭력이며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4월

30일경 본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앞으로 한양대학교 모 대학원 연구실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A4 네장의 이서안은 연구실 소개와 미팅제안 이유, 그 후 이벤트 제안, 연구원의 신상명세서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편지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여성을 성적대상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담긴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팅을 제안하는 이유로 '추위로 인해 움츠러 들었던 물건을 세우기 위해', '학문 탐구에 지친 연구원들에게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위해', 그리고 신방과를 선택한 이유로 '이번 겨울 가뭄에도 물이 전혀 고갈되거나 흐려지지 않았다는 소문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으로 '대명 콘도 2인 1실 MT가' 등 문제성이 심한 표현이 여럿 있었다. 또한 개인 소개에 있어서도 성적 암시를 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다. 신방과와 발신인 간의 전화통화의 내용과 후에 받은 사과문을 통해 우리는 이 편지가 신방과 뿐만 아니

한양대 미팅제안편지건

라 타파에도 보내졌을 가능성과 이 편지의 초안이 이미 전부터 선풍들을 통해서 내려오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화여성위원회는 우선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린 남성우월적이고 여성 폄하적인 성의식이 반영된 명백한 성폭력이며, 특정 대학 간의 대결 구도로 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각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안을 보내면서 연구원 전원이 이것이 성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여성 전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고자 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과문의 전달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의 여론화를 통한 대학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였기에 향후 여론화가 있을 것임도 통보하였다.

특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신문 기사에서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기사화시키면서 하나의 가십거리로 다루는 황색언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대중제가 다가오면서 고대생집단성폭력이 한창 여론화되고 있을 즈음,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않은 채 이번에는 이대가 한양대를 상대로 싸움을 건다는 식의 눈요기거리 기사를 다룬 것이었다. 아마 이는 비단 특정 언론사만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남성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회전반의 관점의 반영이라 여겨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양대측의 사과문은 이화내에서 자보와 통신을 통해 공개되고, 한양대측에도 통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후 백지대자보를 통한 이화인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과문을 받아낸 것은 좋았지만 한양대측이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사과문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미팅제안편지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은 대체적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기 마련이다. 혹은 아마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가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양대측의 미팅제안편지 역시 사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일상

이화여성위원회는 우선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린 남성우월적이고 여성 폄하적인 성의식이 반영된 명백한 성폭력이며, 특정 대학 간의 대결 구도로 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적인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미팅, 소개팅, 조인트 MT, 조인트 동문화 등 남녀 대학인이 만나는 장에서 무수히 격게 되는 대학가의 잘못된 성문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고학년이 되면 여자는 조인트 동문화를 안 가는게 좋다는 인식이라든지 조인트 MT에서 무수하게 부딪치는 기분나쁜 일들,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담론형성이 과연 효과적으로 되었는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하나하나의 어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담론화 하는 자세가 중요하리라 본다.

성폭력을 정의한다

성폭력은 과연 무엇?

이화여성위원회



××양이 남긴 짧은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배어있습니다. 이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1시간 전인 새벽 1시반,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모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며 휴대용 번호를 가르쳐 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피의자 공모씨: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줬다.

◎ 최영태 기자: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모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 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살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해에서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1997. 9. 11 MBC <뉴스데스크>

11일자 MBC TV 9시 뉴스에서 다루어진, 경남의 택시기사 강간사건에 대한 최영태기자의 멘트의 마지막 부분이다. "수치스러운 살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폭력이다. 이와 같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하고 무수한 곡해와 왜곡으로 얼룩진 채 철저히 여성을 짓밟고 있다.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의 문제가 현실에서는 폭력을 당한 자에게 그 책임이 되돌려져, 오히려 피해여성이 죄책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폭력의 피해자와 또다른 가치를 지닌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이 찍힌다. 그 반면, 가해자는 '어쩔 수 없는' 성

성폭력을 정의한다

충동과 상대의 '민감한' 항의에 의한 희생양으로 존재하고 보호받는 현실이다.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은 한번도 그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로 구성되어, 철저히 여성이라는 인간 범주를 배제한 남성중심적인 해석들이 이기적인 담론을 구성·확장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성권력관계를 공고화하는 지반으로 있어왔다. 그러므로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대안적 담론의 담론이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현재 우리의 몫이며 과제일 것이다.

이에 우리 생각의 출발점을 현재의 성폭력 관련 범조항들의 문제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폭력을 단죄해야 하는 법 자체가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효과로 인해 그 지배적 담론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갖는 한계성 정도라 생각하기에도 심히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중요한 것은 정조의 보호 문제가 아니라 성적자율권 확보의 문제

강간이 범죄라는 것은 매우 오래되고도 널리 공유되고 있는 관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간주되는 성적 행동의 범위는 매우 좁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는 행위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 여성이 지켜야 할 정조가 약한 여성이라 판단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왔고, 강간 자체도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그녀가 속한 가문 혹은 그녀의 남편 등에

의 명예 훼손이라고, 즉 정조로 상징되는 결혼관계 및 가부장적 친족관계에 대한 범죄라고 암묵적으로 여겨져왔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이 구현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이나 가문 등의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과 같은 가부장적 사회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권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여성권 확보가 그 선행 운동과제인 것이다.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와 관련된 죄란 결국 '공동체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죄'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녀에 대한 간음(성가침입)만을 강간으로 보는 형법상 강간죄 규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강간죄의 객체가 왜 꼭 '부녀'여야 하며, 부녀는 왜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을 갖춘 몸'으로만 파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성지배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녀를 사회적으로 정의·확립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창출·유지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남근 중심의 법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절과 남성

성폭력을 정의한다

들간의 협력에 의한 사회적 지배체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부권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렇게 통제된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각종 권력구조를 유지·재생산하는 기반이 되고,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결정적으로 억압되어 온갖 성적 관계에서의 불평등의 전제가 된다.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결국 정조·순결과 그 관념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 여성 소유권을 지켜준다는 것이 되고, 결국 성폭력 피해 여성도 이와 같은 정조·순결 이데올로기의 가중된 피해를 받게 된다.

형법에도 얼마전까지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정조·순결 이데올로기가 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정조를 잃었다는 죄의식을 강요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조장하여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1995년 형법개정으로 제 32장의 그 표제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뀔으로써 정조라는 말은 법조문에서 사라졌으나, 정조를 대신하는 그 어떤 대안적 보호 범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세부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의 제목을 삼아버린 이러한 식의 법개정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이 실제로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떤 윤리적 기준에서 판단·통제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처음부터 회피한 채 논의를 봉쇄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형법 제 몇 조, 몇 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폭력범죄라는 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직도 법담론 속에서는 여성의 몸이 정조와 재생산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이 여성 자신의 것이며, 그

의 삶과 정체성의 터전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호범의이 결코 정조에 관련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점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여성만은 아니기에 현실 적합성도 없을 뿐더러 성폭력과 정조개념의 분리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법담론은 여성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에 대한 해석이, 남성의 소유물로 존재하는 여성의 성에 대한 침해로 읽혀지고 있는 현실의 반영과 그 확산의 토대인 것이며,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구성되어진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의 실체이다.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없는 침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권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여성권 확보가 그 선행 운동과제인 것이다.

2. 저항을 했느냐가 아니라 동의의 문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이지만, 동의의 결여를 판별하는 기준은 지극히 남성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녀', '간음'과 함께 형법상 강간죄 규정을 구성하는 세번째 조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이것만 보면 마치 가해자의 폭력이 기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판례에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해

성폭력을 정의한다

자가 명백히 거부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폭력으로 억압했다 하더라도, 실제 신체적 위해를 불사하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그 폭력은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사 저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 폭행이 피해자의 현저한 항거불능을 초래할 정도인 폭력이었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 모순적인 반대면도 존재한다. '현저한 항거곤란'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또한 힘을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는 강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힘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과 범인이 행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강간범죄에서 피해자를 판단대상으로 삼는 현상은 이것을 정조문제로 보는 통념과 결부되어 있다. 즉 90년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여성이 평상시에 정조관념이 희박했다면 그 여성의 정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폭행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의를 철저히 무시해 버린다. 여성의 NO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편리한 대로 받아들여져 YES로 간주된다. 여성은 개인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고, 여성의 말은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남녀 양성이 실질적으로 개인이라는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언어적 거부에 대한 이런 식의 무시는 비단 범행을 당하는 순간 뿐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일관되게 악영향을 끼친다. 늘 맑은 정신으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차하면 목숨마저 내놓고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너무 많은 행동의 제약을 강요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어떤 부당한 성적 침해를 당하더라도 '부주의, 유혹, 무저항 등 동기요인을 내세운 여성 자신이 유발한 것'으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폭력은 모두 성폭력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물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여성이 강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언제나 강간의 두려움에 조바심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남성들의 주의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조심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경험당하고, 스스로 수동성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을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들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강간 여부를 동의 아닌 저항의 여부로, 범인 아닌 피해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현재의 법인식 자체는,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성폭력을 정의한다

한다는 성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파생된 구조라고 읽을 수 있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의 억압이 불평등한지, 억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성의 성을 소유한 남성지배권력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어진 여성의 의사소통체계가 사회적 소통언어로 확립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이 현실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폭력을 당한 자가 끊임없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증명해야 하고, 불평등한지를 설명해야 하고, 폭력의 상황 뿐만 아니라 이전의 피해자 자신의 일상이 사법적 판단준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성의 성적자유권 확보의



측면에서 성적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기준은, 저항도 거부도 아닌 동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강제추행의 문제에서 나타난 피해자 소외

형법에는 강간 외에 강제추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미루어 일단 이것은 강간보다 죄질이 낮은 가벼운 성폭력으로 생각되고 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오산이다. 강제추행에는 전라상태를 만들거나 성기 이외의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동성간의 극심한 성폭력 등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추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주 심한 추행만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행동이 추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위 '전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는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 '일반인'이 누구인가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피해자 여성이 느끼는 실제 수치심과 무관한 일방적인 남성적 기준이 '일반' 또는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지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각각 다를 수 있고, 가해자와의 관계나 추행시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조와 관련되는 일인 강간사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갖 정황이 다 참작되어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면, 추행 피해자의 수치심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되지 않은 채 결론지어지고 있다.

결국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연속성 스펙트럼상에서 강간에 준하거나 조금 가벼운 범죄라기보다는 '간음'과 '부녀'라는 강간의 조건들 중 둘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강간에 버금갈 만큼 심한 범죄들을 따로 독립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의 성폭력은 대단히 다양하며 그 성격이 연속적이므로, 어느 것이 강제추행이고 어느 것이 강간이나 준강간 또는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인지를 가리키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소극주의를 택하고

성폭력을 정의한다

있어 기소된 죄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성범죄범으로 처벌하기는, 몹시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는 성적자유권의 침해라는 관점으로 성폭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기중심적인 성인식과 남성지배권력의 성인식을 반영한다. 현재 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양성에 명확히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가 바로 성을 성기중심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행위로 연결시켜 생각해 버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여성의 성을 단지 그 주체성이 없는 대상이, 남성의 성문화를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기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남성의 성은 성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우월하며 나아가 공격적인 것이 '남성답다'는 생각에 반해 여성은 성에 대해 무지하고 소극적인 것이 미덕이라는 식의 통념은, 인간적이며 조화로워야 할 성을 남성의 욕구중심으로 일그러뜨렸고 여성의 성적 자기표현이나 자기결정권을 배제해 버렸다. 즉 남성욕구 중심의 성에서 여성은 단지 남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육체적 대상이 되어 버림으로써, 감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에 대해 공인된 규정 또한 남성중심적 시각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이다. 특별한 장소나 특정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강간만의 문제 또한 아닌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개념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강간은 성관계(성기삽입)가 이루어짐이며 성희롱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는 대답이 흔할 터이다. 또한 성폭력이란 아무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얘기될 것이다. 아직 우리의 깨닫고 버린 사고체계는, 성폭력에 대해 단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분류의 기준점을 두고 있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면서, 피해자의 여성성을 지닌 인권은 침해되어지고 만다.

성폭력을 단지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성인식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 또다른 기준은 필요치 않다. 폭력에 대한 모호한 기준들로 인해 또다른 폭력이 형성되는 사태는 피해야 할 일이다. 단 한번의 폭력으로 형생을 그 폭력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성폭력에 대한 언어의 남용은 피해자를 성생위의 대상이 되는 여성으로서만, 나아가 피해자가 아니라 손해를 본 다른 손바닥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뿐이다.

성폭력은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 강간 등 여성성에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폭력은 모두 성폭력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단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유권'을 침해한 폭력일 뿐이며 그 기준점을 여타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맞추어야 할 뿐이다. 여성성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그 기본적인 시작인 것이다!

학내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대학 = 성폭력 박물관 “없는 것이 없다?”

이화여성위원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중적인 성규범 속에서 오히려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피해상황을 숨기고 상처입은 채 살아가게 된다. 그 중 학내성폭력사건으로서 알려진 것이 올해 초 국민대 교수의 대학원생 강간사건과 서울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사건, 성균관대에서의 학생간 강간사

건 등과 본교에서의 한양대 대학원생들의 미팅제안 편지사건 등이 있다. 그 전에 있어왔던 사건들이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그 주요성을 따져서 따로 선정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만큼 학내에서 수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들 역시 실질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현재 밝혀진 상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현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대책위가 꾸려지고 해결을 도출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

고려대 여성위원회
국민대 중여학생회
동국대 중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덕성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권역여성모임연대
서울여대 날개달기
성균관대 중여학생회
수원대 중여학생회
시립대 중여학생회
연세대 여성자치연립
영남대 중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의
한양대 여성위원회

담과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는 데, 숨겨진 많은 사건을 대변하는 공개된 사건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성폭력사건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시급한 사명을 띄고 있기에 더욱 대책위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보통 학내 성폭력 발생시 그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단

위는 대부분 여성위원회나 중여학생회와 같은 여학생 자치기구이며 그를 중심으로 가장 빠른 방식의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나 해결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에는 피해자의 일차적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의 특수성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꼽힌다.

가부장제와 권위주의라는 사회원리 안에서 성 관련 논의를 터부시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

제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성의 힘든 싸움 중에도 결국 가해자 처벌이 모든 해결의 귀결인양 되어버리며 결국 그 처벌도 현실의 벽에 박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구현되곤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건 자체의 가시적 종결이 해결로 보여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미봉책만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 한번의 사건은 근본적인 성폭력의 근절·예방이 되지 못하여 매번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통념들에 묻혀 각 학교의 해결 단위들 간에도 성폭력사건의 기본적인 원칙이 공유되지 못하거나 혹은 단위의 사정에 따라 사건의 지리한 공방을 벌일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여 결국 사건에 따른 올바른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조성에는 성폭력사건의 대책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는 중에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참견이 한몫 하는데, 성폭력사건을 가습으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성관계로 취급하는 왜곡된 시선이 그것이다. 대안적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지키는 대책위에게 가해지는, '너무 피해자 중심으로만 묻고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게다가 대책위의 구성이 대부분 여학생 자치기구로 구성되므로 대학에서의 역학관계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할 경우 그 해결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며, 남성권력에 지위권력을 더해 이중권력으로 다가오는 교수·교직원 성폭력 역시 재학생단위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폭력 해결의 올바른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성의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고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구성된 <학내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는 학내의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위의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내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냄에 힘을 모으기 위해 현재 전국 14개 대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합해 있는 회의 기구로서 상설 모임을 꾸리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여 해결과정에서 덧붙여지는 성폭력에서 보호해가며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 근절이기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운동단위들간의 연대모임은 그 목적을 위해 더 나은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결집력과 활동력은 더 큰 공신력을 확보하고, 설득력있고 뚜렷한 해결지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차적으로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학교마다의 상대적인 상황들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원칙을 세워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그런 입장 속에서 대책위에 대한 '피해자옹호 논리' 공격을 뿌리뽑아 올바른 해결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같은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차적으로 무수히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학내와 나아가서는 전 사회의 여성권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위치로서의 연대회의의 자리매김이 이후 각 학교내에서의 여성운동과 대학인 여성권 증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연대회의

성폭력 담론 2

여성연대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이 형상화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투쟁인 것이다.

(4) 여성운동단위의 세력화

법은 사회변동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하기보다는 법을 만들으로써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큰 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 여성운동에서도 이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 모두에게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개정 노력을 해 왔다. 물론 우리 법의 기본적 성격 때문에 법을 이용하여 여성주의의 목표를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효용을 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법개정을 위한 여성주의의 노력들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체계적인 논리나 이론적 기반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에 관련한 법률을 여성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몸의 권리'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발전

시키는 방향이 유용하다. 신체의 자유가 공적인 면에서 이동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자유 등을 말하는 것인 반면, 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성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이를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몸의 권리란 기본적으로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성적 자율권이고, 다른 하나는 존경권이다. 성적 자율권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이중 성윤리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성별로 보아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터이다.

학칙 제정운동이 단순한 법제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은 이런 말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의 형성은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권력지배의 현실에서 그 자체로 투쟁일 수 밖에 없으며, 여성운동 단위들의 구체적인 행동결과인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을 재구성하여 세력화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서는 딱히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즉 여성운동 단위들의 노력이 이러한 구체적 실천 전력으로 나타나 대중운동화되지 않는다면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의 방향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

여성연대회의

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와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의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날로 다양한 형태로 학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고 비억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하기에 우리에게서 환경형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필요하다.

환경형 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환경형 성폭력 개념이 정립된 과정을 보면 여성권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폭력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 성차별로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환경형의 경우는 피해 여성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인간'이 적대적 또는 남용적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적대적인 작업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그 또는 그녀의 심리적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증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환경형 성폭력의 관별에는 환경의 구성요인들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단일한 요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물리적 위협 또는 단순한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 같은 것들도 적대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결국 외국에서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고의적인지 공격적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원하지 않는' 행동이면서 '상대에게 상처주는' 여부만으로 족하다고 되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환경형 성폭력의 개념에 타자에 대한 배려가 존재함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피해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남성중심주의를 벗어날 뿐 아니라 특수자의 관점을 보편화하여 그것을 모든 상황에 대한 것대로 삼는 근대적 시민권 개념의 전체적인 틀거리를 바꾸어 놓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틀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설정은 대학사회 구성원으로써 여성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양성 모두에 비억압적인 환경을 구성해내기 위해서이다.



들꽃모임에 대하여

이화여성위원회

지금껏 대학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부문운동으로 사고되어 주류를 이루는 운동에서 소외되거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 받았으며 또한 활동의 범주도 좁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속성도 보장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제 마약 새롭게 싸울 띄우기 시작한 대학의 '여성주의' 물결이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 나가고,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위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요일 자발적인 참여 하에 대학의 여성담론을 창출하고 행동을 모색해 가는 지금의 '들꽃모임'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들꽃모임'이라는 아주 소박한 이름하에 모인 단위들이 이처럼 강한 결속력으로 그 이름이 시사하듯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활동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현재 대학에서

여성운동단위가 자리하고 있는 험난한 지형 때문이라곤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껏 대학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부문운동으로 사고되어 주류를 이루는 운동에서 소외되거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 받았으며 또한 활동의 범주도 좁았고 그 문제의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속성도 보장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0년대 중반에 이

작년 여름, 이화에서 고대생집단성폭력 대책모임으로 제안한 서울지역 각 여성운동 단위들의 연합체가 바로 '들꽃모임'의 시발이다. 처음 대책모임을 가졌을 때는 단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임시적인 모임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단위들은 이후로도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절절한 문제제기와 결합된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매주 목

들꽃모임에 대하여

로써 이제 마약 새롭게 싸울 띄우기 시작한 대학의 '여성주의' 물결이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 나가고,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위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연대'를 외치며 모임을 갖기 시작한 '들꽃모임'이 만 1여년간 펼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모임을 시작한 첫 취지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였던만큼 대학 성폭력담론을 형성하고 활동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대학 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 결합하는 데에 한 몫을 하였고, 또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들을 펴오고 있다.

'들꽃모임'의 활동으로 두드러진 것은 바로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각 단위에서는 페미니즘 문화제를 비롯한 각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들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여성비하에 대한 항의, 미인대회 반대시위를 비롯한 문화계릴라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 각 대학의 여성운동단위들과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개인들이 함께 모여 여성연대와 여성주의 문화창출을 목표로 한 '1회 페미니즘 캠프'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각 대학 여성운동단위들의 결속체라는 설명은 '들꽃모임'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지 못한다. '들꽃모임'은 기존의 운동단위들의 연합체의 형식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공동체이다. '들꽃'이라는 이름이 담는 의미처럼 여성들이 모여 '수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기존의 수직적 질서가 아닌 수평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새로운 여성문화 창출을 시도해가는 여성들의 모임이다. 말 그대로 '수다모임'으로서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남성중심적

언어구조와 수직적 위계질서를 지향하는 체계에 대항하여 '들꽃모임'이 표방하는 나름의 반란과 대안이다.

이 사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표출되어 본 적 없는 여성의 시선, 목소리, 언어들, 남성적 질서가 숭상받는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출발에서부터 회의적인 것일는지 모른다. 어떠한 것이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싸워나갈

말 그대로 '수다모임'으로서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남성중심적 언어구조와 수직적 위계질서를 지향하는 체계에 대항하여 '들꽃모임'이 표방하는 나름의 반란과 대안이다.

것인가. 모든 것이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들꽃모임'은 아직도 실험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란 이름으로 뭉쳤으며 '여성'이란 이름으로 함께 싸우고, 또한 같은 이유로 힘을 얻는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존의 논리와 방식을 거부하는 저항의 몸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껏 읽혀지지 않았던 여성문제를 하나 하나, 우리의 시각으로 찾아 읽어내고 재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펴 나가는 작업들을 '들꽃모임'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행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힘차게 수행해 갈 것이다. 우리는 '여성'이란 이름으로 연대하였으므로.

들/꽃/모/임



들꽃구성원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한양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서울여대 여성학회 '날개달기'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매주 목요일 늦은 6시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 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의: 360-3562(이화여성위원회)

Photograph by 뽀나

여성연대를 외친다

1회 페미니즘 캠프

이화여성위원회

남성중심적 사회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한 주체가 되어 독자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각 대학 여성운동 단위들의 모임인 '들꽃'에서 1회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 100명 가량의 여학생들이 '여성연대'를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는 여성연대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가부장제하에서 남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보장되었던 반면 여성은 남성의 노예로써 다른 여성들과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리하여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독립성, 개별성, 독자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다.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거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은 서로 시기, 질투 밖에 할 줄 모르며 그저 집안에 얹혀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들 모두가 이러한 억압의 기제인 것이다.

이렇듯 오랜 억압의 역사를 통해 공고해진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는 현재 대학사회 전반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사회 구조나 마찬가지로 대학사회의 많은 영역은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문화나 그 외의 대학문화 전반에 걸쳐서 남성적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근거로 형성된 문화 내에서 여성은 표면적으로 같이 그 문화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남성집단에 의해 배제되고 성적 대상화 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들만의 공간인 이화와는 달리 다른 남녀공학의 여학우들은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1회 페미니즘 캠프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 안아 각 대학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들의 모임인 '들꽃'에서 1회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사회 '주변부'로 존재하기에 느꼈던 답답증과 체증처럼 쌓여있던 표현의 욕구, 그리고 여성들만의 고유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당당한 주체가 되어 독자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 안아 각 대학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들의 모임인 '들꽃'에서 1회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사회 '주변부'로 존재하기에 느꼈던 답답증과 체증처럼 쌓여있던 표현의 욕구, 그리고 여성들만의 고유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1회 페미니즘 캠프는 각자가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

는 자리를 시작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여성의 몸', '일 상속에 시비걸기-성희롱' 등 다양한 주제로 조별 토론과 총화자리를 가졌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다양한 억압들을 토로하고 그 억압 지점에 대한 해석과 방향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표현해

본 것이다. 또한 이 사회 '강한 여성으로 살아가기'와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는 기조 속에서 다양한 방법 주제 마당이 진행되었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일들에 대한 관점과 해결 능력을 점검해 보고 그 동안 폄하되고 배제되었던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질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이 밖에 '객관적 미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과 여성연대를 주제로 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그리고 위령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셋째 날 진행되었던 방법 주제 마당의 각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1. 뒤집는 교육-동화 다시 쓰기

동화는 이해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쉽게 아이들과 접하게 되어 그들의 흥미와 사고체계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동화에 나타나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세계로의 유혹에는 그 지배체제가 원하는 '여성성'을 비롯한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동화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평가되어지며, 이러한 여성 등장인물을 보면서 실제의 여자 아이들은

1회 페미니즘 캠프



강요된 '여성성'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동화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노동시장의 성별 이중구조와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에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상징체계를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법률 트레이닝

법은 한 국가의 사회 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정치 기술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남근주의적 국가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법률은 제재를 통해, 남성적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을 효과적으로 지배해 왔다. 현실에 천착하여 현실을 구성하는 제반 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변화와 진보의 영역이다. 따라서 철저한 타자인 여성이 여성의 의지로 여성을 위해 행하는 현실 개혁의 몸부림은 확실한 신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래 가사 바꾸기

90년대 이후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친 한국 가요이지만 남성중심적 시각과 언어 표현은 변함없이 존재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불려지는 민중 가요 역시 전형적인 가부

장적 사고를 갖고 여성을 대상화 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다. 진보적 운동을 담보하는 대학에서조차 고민 없이 부르며 일상화 하고 있는 노래 가사들을 여성 현실에 맞추어 바꾸어 보았다.

4. 여성의 몸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움의 굴레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며 살아왔다. 여성 힘의 원천인 출산은 동시에 여성 종속의 근원으로서 남성들의 지배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현재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관계들과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직접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호신술-길들여진 노예 근성을 거부하며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남성보다 유약하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다시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보호받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여성은, 강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쉽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스스로의 몸의 권리를 되찾고,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몸짓을 되찾는 시도가 필요하다.

新 장화홍련년

정리 / 아이 (이화여대원학 97)

이 동화는 1회 페미니즘캠프 방별주제마당 중 「동화다시쓰기방」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원문의 줄거리

옛날도 청산리방에 벼무릎이란 작수가 있었다. 그는 술에 자다가 부인이 놓게서야 선녀의 모습을 얻어 딸 형제를 낳았다. 장화와 홍련 자매는 자랄수록 재모가 튀어나고 호향이 특출했다. 그러나 부부인 장씨는 병을 얻어 일찍 죽게 된다.

벼작수는 부득이 허세를 후일로 맞는다. 허씨는 죽할 뿐 아니라 실심이 사나웠다. 허씨는 자기의 소생이 생긴 뒤 전설의 딸들을 함대하기 시작하였다. 장화가 절혼을 함에 후수를 많이 준비하라는 작수의 땅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장화를 죽이기로 흥계를 꾸민다.

허씨는 큰 쥐를 잡아 죽어 껍질을 벗긴 후 장화의 허벅지에 넣어, 장화가 부정을 저질러 낙태했다고 속여 아들 장식으로 하여금 언뜻 속여 바쁘려 죽인다. 그 순간 밤이 나타나 장식의 두 귀와 한 팔과 한 다리를 잘라가 장식은 병신이 된다. 이에 게모 허씨는 홍련까지 학대하고 죽으려고 한다.

홍련은 이렇게 언니 장화가 죽은 것을 알았고, 도장에 현몽하여 원한을 알았다. 겹디다 못한 홍련도 장화가 죽은 것을 찾아가 무덤에 뛰어들어 죽는다. 그로부터 그 무덤에서는 주야로 곡성이 들렸으며, 원한한 두 자매가 원정을 호소하려고 부사에게 가면 부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런 변고로 그에게 부사로 오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정동무란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다.

도입 초야에 장화와 홍련의 원리가 나타나 원사하게 된 사물을 소실하게 하였다. 부사는 게모 허씨를 철저히 몰조하여 죄상을 밝힌 다음 처형하였다. 그리고 무덤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안장하고 비록 세위 혼례를 위로하였다. 이후 부사는 승직하였다.

한편 벼작수는 다시 부인을 맞아 죽은 두 딸의 현신인 쌍둥이를 낳아 기른다. 자매는 자라서 평양의 기부 이연호의 아들 쌍둥이 윤정, 윤석과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산너머 연못을 끼고 있는 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만 곳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롭던 그 고을에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지 마을의 남자들이 자꾸만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을 원님들은 몇달을 못 넘기고 계속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니 새로 부임한 원님 마음도 좋을 리 없지요. 언젠 다시

살인 사건이 터져서 쫓겨날 지 모르는 일입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부임한 지 며칠 안 돼 두어명의 남자가 또 원인 모르게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 내 출세길은 끝났구나, 전전긍긍하던 원님 앞에 어느 날 한 늙수그레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배좌수의 아내 허자명이옵니다. 실은 어제서 이 고을 남자들이 한달이 멀다하고 죽는지 그 이

유를 알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귀가 번쩍 트인 원님은 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바닷가 마을에 살던 자명이 첫번째 혼인에서 난 아들 장식을 데리고 이 고을 배좌수에게로 개가했을 때, 배좌수에게도 전치 소생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화와 홍련이지요. 그리 특별한 구석은 없는 무던한 처녀애들이었지만 씩 웃는 모습이 둘 다 참 예뻐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참했던 장화가 아비 모르는 아기를 났 것 입니다. 자명은 장화에게 아기를 낳은 후 집을 쟁겨 멀리 떠나라 했지요. 아기는 자기와 홍련이 잘 돌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장화는 멀리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 근처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배좌수는 끝내 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화 손에 칼을 쥐어주며 소문이 나기 전에, 그래서 가문을 더럽히기 전에 어서 사라지라고 소리질렀지요. 장화는 손에 쥐어진 칼을 보며 훌쩍 울다가 해산한 그 날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남은 자명과 홍련은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둘이서 장화의 딸을 잘 키우자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달 밝은 밤이면 연못가에 장화의 딸을 안고 나가 가만히 서 있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쫓쫓, 배좌수도 안 됐지. 이번에 새 부인에게도 또 딸을 봤대.”

“글쎄 말이야, 딸 셋을 시집보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데, 참, 그나저나 그 집 첫째 딸 장화는 어디 간 거야? 요새 통 보이지 않아.”

“즈이 외가댁에 갔다가 거기서 선보고 시집갔다 하더라.”

그렇게 조용히 나날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날 홍련마저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장식도 그 날로 사라졌어요. 마을 어귀로 도망치듯 걸어가는 장식의 뒷모습을 봤다고 한 아이가 말했지만 그걸로 끝, 장식의 소식은 다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자명은 시름에 겨워 아예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고 배좌수도 마루 끝에 힘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자명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소리없이 다가왔습니다. 장화와 홍련이었어요.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은 자명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실만큼은 자명이 곱게 곱게 기르고 있는 장화의 딸이 바로 장식의 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장식이 장화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장식이, 그 착한 놈이 그럴 리 없어.”

자명은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홍련이 영영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식이 홍련마저 겁탈하려다가 심하게 반항하자 열걸레 홍련을 죽여버렸다는 것입



다시 쓰는 동화

장화홍련단

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 달아난 거지요. 그 말을 할 때 장화의 얼굴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밤이 셀 때까지 장화와 홍련은 그렇게 뗏힌 한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쏟아놓은 뉘두리를 주섬주섬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래도 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명은 그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닭소리를 들으며 혹시 눈물자국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을까 방바닥을 쓸어보았지만, 장화와 홍련의 흔적은 이미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날 자명은 오래오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후부터입니다. 마을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빨래터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통해 자명은 어느 정도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남자들은 강간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촌대네 둘째딸, 개가 목맨 것도 그 자식 때문이라고?"

"호옹, 그렇다니까. 솔직히 그 놈 죽었을 때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리고 보니, 지지난 달 장사치룬 배나무 집 아들도 그랬는데…… 거 참, 신기하다. 누가 알고 그런 놈들만 골라 목숨 착착 앗아가나?"

"에이그, 척 보면 몰라? 원혼이 쌓인 게야. 그래서 죄 받는 거지."

자명은 어렴풋이 장화와 홍련이 그 원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으로 어느 그름밤 자명

은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연못 옆에는 흙이 덜 마른 홍련의 무덤도 있었지요. 자명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너희가 강간범들을 죽인 거라면 내가 쥐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달라고. 처음엔 바람이 조금 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말하자 나뭇가지가 갑자기 뚝,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섞여 장화, 홍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여자들의 몫까지 복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승을 못 떠나는 이유지요."

"나으리, 일은 그렇게 된 것이읍니다. 그러니 애씨 범인을 찾으려 노력하시지 마십시오. 귀신을 어찌 잡겠습니까. 차라리 큰 곳을 해서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 넋을 위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방비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지금도 멀쩡히 길 걷고 있는 땃같은 놈들, 죄다 하옥시켜 호되게 죄값 치르게 하면 귀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터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가엾은 큰애기, 장화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도 한번 못 지낸 게 두고두고 한이 되는군요."

원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생각에 잠겼지요. 생각 끝에 원님은 두 무릎을 딱 치면서 웃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떠오른 것처럼요.

다음날 원님은 나졸들을 불러 자명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하징주 불제화 화기연사



"여봐라, 배죄수 집으로 가서 그 아내를 냉큼 잡아 오너라. 그 년이 바로 요사이 일어난 살인 사건들의 범인이다."

저런, 원님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명이 범인이든 아니든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원님 자리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이야기를 보고해 올리면 비웃음만 살 것이고, 그도 자명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아줌마의 헛소리 쫄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명의 이야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은 남자들이 다들 강간범이라고? 그건 사실 같은데…… 잘됐어! 그 여자를 범인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의붓딸이긴 하지만 딸 둘이 그렇게 죽고 나서, 눈 뒤집혀서 복수 하겠다고 죄를 저질렀다 하면 딱 맞는 걸. 거 좋다 좋아!'

그러나 나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자명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은, 원님이 명령을 내리던 바로 그 새벽, 장화와 홍련이 자명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님의 흥계를 이야기하고 어서 달아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자명은 간단한 노잣돈만을 들고 길을 떠난 거예요. 물론 장화의 딸을 가슴에 꼭 껴안구요.

정신없이 달아나던 자명이 저 너머에 있는 산기슭에서 쉬고 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자명은 피로하기도 하고 약간 어질머리가 나기도

해서 가만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화, 홍련과 다른 여자들과 원님과 남편의 일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모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길 끝에서 뗏불과 나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자명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걷고 있던 길이 아니라 산 속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나졸들의 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나졸들의 무리도 산에 발을 막 들여놓았는데, 그래서 자명과 거리가 열 발자국 정도로 좁혀졌는데, 그 때의 일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우르르 나졸 모두가 넘어졌다고,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앞으로를 가질 못했다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나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명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처 발에서 집 매고 있던 사람들도 그저 놀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조금 후 한 할머니가 소리질렀지요.

"예구, 저 봐라, 여자귀신들이 나졸들 앞을 딱 막고 서 있네, 한 둘도 아닌 여럿이다야……"

자명은 아기를 안고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 발길 향하는 산길 저 쪽으로 아슴푸레한 빛이 내비쳤다고도 전해집니다. 무언가 또다른 세상이 자명이 간 그 곳에 존재하듯이 말이지요.

- 끝 -

다시, 미인대회 폐지를 주장하며

이화여성위원회

미인대회 구경, 재미있습니까? '생활의 활력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남성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 단언합니다.

여성들의 지옥스러운 모습.. 이런 하도 익숙해져서 맘편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미인대회 중계를 보며 "xx번이 1등할 것 같아" 라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5월, 국내 방방곡곡에 창궐하는 미인대회들의 원조격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시끌벅적하게 치워지고, 세계 최고의 미인을 뽑는다는 미스유니버스 대회도 6월초



를 주관하거나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가능하다.

미인대회 · 여성들의 육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를 제시한다는 거

국내에 방영되었다. 해마다 철이 돌아오면 텔레비전 영상을 필두로 당당한 듯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인대회 폐지론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수많은 미인대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이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그 보편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인 미인대회 자체의 개최들과 공중파 방영,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대중들에 의해 이제 하나의 생활문화 현상으로 공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이 직접 미인대회

를 주관하거나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가능하다.

그 '이상적인 여성의 육체'란 마치 쇠고기가 부위별로 평가받듯, 그 대부분의 기준이 목, 어깨(의 선과 각도), 잇속 잇몸, 유방(의 위치) 등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진 분야들로서 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를 공인된 미인으로 뽑은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약간이라도 비만하거나 왜소하거나 늙고 쇠락한 신체는(너무나 당

다시, 미인대회 폐지를 주장하며

연하게도) 선발에서 배제되어, 이러한 육체들은 관리되고 교정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한다. 이미 그 당위성으로 '육체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맞도록 된 무리한 다이어트나 온갖 신체부위의 정형 등은 바로 이러한 틀에 맞춰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터이다. 먹고 싶은 것을 억눌러가며, 답답할 것이 뻔한 속옷을 힘들여 입으며, 하루종일 외모에 대한 걱정을 무의식중 염두에 두며, 남들이 북돋우는 말 한 마디에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몸과 정신에 이토록 극단적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듯 관리되고 교정된 육체는 결국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누구에게? 이는 이미 사회 주류의, 남성의 시선으로 길들여진 여성들의 시선도 포함되었지만) 주는 '균형잡힌' 그것이며 결국 '쾌락을 즐기기에 가장 알맞은 육체'로 몰상화, 대상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성=비합리성=감정=육체'라는 공식은 이미 남자 사상가들이 만든 철학사, 문화사의 아주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암묵적인 대전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말이다)

미인대회는 분명 이 시대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되는 여성성을 제시하고 강요한다. 그 여성성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성의 가장 성적인 육체만을 가치 있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미인대회에서 제시되는 외적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의 육체만이 성적인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진부한 말이지만, 여자도 '인격체'임이 물론이다. 여성의 그런 공식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철저히 육체적이고도 또 인격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대상으로서, 또한 성적으로 가치있기만 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 버린 여성성이란,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잣대질당한 결과가 되어버림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자신의 인식마저 되짚어 본다면 그 존재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듯, 모든 사회의식에 반(半)강제로 주입되어 진정한 여성성을 왜

여성의 그런 공식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철저히 육체적이고도 또 인격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대상으로서, 또한 성적으로 가치있기만 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곡하게 된다. 그러나 1997년, 지금의 현실에서는 여성의 육체가 하나의 상품 또는 눈요깃거리로만 취급되는 비인간적인 의식이 구현된 이러한 제도-미인대회가 결코 진실이 아닌 찬양속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공중파를 통해 이 사회 내에서 여성이 하나의 상품, 눈요깃거리로만 취급되는 것, 즉 '여성의 비인격화'를 노골적으로 공인하고 강화한다. 여성 선체를 평가한다는 심사를 한답시는 자리에서 '우리사회'라는 겉포장을 한 남성성권력은 여성의 인격성 자체를 경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육체를 인격에 앞서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인대회는, 여성인력과 많은 자본을 이루해야 할 수 없이 낭비시키고, 왜곡된 여성문화를 이

사회와 여성들에게 진실인 양, 그것만이 전부인 양 가르치게 된다. 젊은 여성들에게 화려한 신데렐라로 환상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시간, 에너지, 경비를 낭비시키고 부추긴다. 비단 미인대회 참가와 시상 꿈을 꾸는 여성들에만 아닌 그 효과는,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여성의 외모가꾸기 경쟁의 조장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폐해를 들자면, 2만명



가까운 젊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대의 보편적 여성문화의 척도처럼 일컬어지는 '이대생'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의 그 가치의 이중성으로 인한 기만적인- 형편없는 폄하와 더불어, 또한 그런 미인대회의 기준과 부합하는 '아마도 이상적인 이대생'의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재화·용역에 덧붙여 매매하는 이대알 거리와 모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또한 곱지 않은 눈길의 상승효과가 있다. 외모에 대한 그토록 과다한 열기를, 100인 100색의 개성을 타고났고 또한 스스로는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의해 정리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괄된 기준을 향해 돌진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발된 '미인', 그만큼 확실한 효과를 발하는 토론

한 이데올로기는 정말이지 혼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을 능력보다 외모에 치중해 평가해 온 직업 사회의 풍토를 공고히 하기도 한다. 취업시, 실력보다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용모단정'이라는 불문율. 비단 취업생이 아니더라도 그 뜻을 모르는 학우는 드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용모단정' 조건의 부당함을 느껴 분노해 보았을 터인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는 미인대회가 부여한 각 범주의 면죄부가 한몫을 할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되는 성의 상품화-여성 전체에 가해지는 엄연한 성희롱-를 '美의 제전'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 하고 부추긴다. 이는 사실 외모와 성적 매력을 최대한 부각시켜 여성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일 뿐이며, '미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그 여성들의 육체를 갖가지 방식으로 구경거리화시켜 버리는 것 뿐이다. 성이 물상화됨으로써 이 사회가 겪게 된 갖가지 병리적인 폐해들의 원인인 중죄범이다.

이렇듯 미인대회를 비판하는 것은 단지 여성 육체의 대상화, 미의 경형화 등을 문제삼는 것 뿐만 아니라 미인대회를 통해 표상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성, 그리고 여성의 육체에 강요되는 형식들과 그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성의 불평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미인대회 폐지의 주장은, 여성에게 지금까지 강박적으로 주입되어 왔던 육체의 조련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움직임이며 왜곡된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의 한결같은 일 것이다.

이렇듯 부당한 이데올로기는, 그 <피해자>인 여성/스/스/로 에 의해 거부되고 반격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6년도 미스코리아 평가 기준안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 더이상 용서가 안되기 때문에!”

구분 / 심사기준	심사요점	점수
얼굴전체 (매력, 균형)	• 첫 인상이 휘트하고 개성이 강하며, 매력(남의 시선을 끄는)적이어야 한다. • 얼굴이 크지 않아야 하며 • 말할 때와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눈과 코를 지나치게 정형화하지 않았는가 •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	1. 이마 2. 눈 3. 코 4. 입(입술) 5. 잇속 잇몸(미소자울 때) 6. 턱 7. 귀 30점
목, 어깨, 팔, 가슴	• 목이 짧지 않은가 • 양 어깨가 넓으면 안되며, 어깨의 선이(각도) 부드러워야 한다. (20도가 각도가 이상적) • 유방의 크기, 위치, 선(후보자가 유방을 위로 지나치게 노출시키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유의) •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 팔의 선, 탄력성	8. 목(짧지 않은가) 9. 어깨의 선(20도 각도) 10. 팔의 선, 근육, 탄력성 11. 손 12. 유방의 크기, 위치, 선 20점
허리	• 등의 선(곧은가) • 허리의 선과 하이즈(곧으면 안됨) • 배(나오지 않았는가) • 허프의 사이즈 선 모양(처지지 않았나) •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벌어지지 않았나) • 다리의 선(쪽 곧은가), 탄력성(근육이 보이면 안됨)	13. 등의 선(곧은가) 14. 허리선, 하이즈 15. 배(나오지 않았나) 16. 허프의 사이즈, 선, 모양 17.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 18. 다리의 선(쪽 곧은가), 근육탄력성 19. 무릎, 발, 발뒤꿈치 20점
전체 피부(색), 흉 유무(전신의 매력, 균형, 조양미)	• 몸에 상처 및 큰 점 유무 • 걸을 때의 자세 • 몸 전체의 피부 • 매너/말하는 태도와 서있는 자세 • 조양미(질문으로 확인) • 가정환경(질문으로 확인) • 교육정도(질문으로 확인)와 외국어 실력 • 키가 큰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 것 • 전체 체격에 균형이 중요함(다리가 몸 전체의 균형에 맞지 않게 길어서 안으면 작은 사람과 허리가 긴 사람)	30점



정신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화여성위원회

정신대 문제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할머니들이 수요시위를 시작하신지도 5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대사관 문은 굳게 닫혀있고 세상의 관심은 점차로 시그러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동시에 이 세상에서 여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은 '정신대'라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묻혀져 온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발굴하고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강간의 피해자로 존재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정신대 문제가 바로 여성들의 역사임을 우리의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들을 '잊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수요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싸움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전쟁이 나면, 당신도 종군위안부!

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이면 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수요시위를 진행하신다. 언제나 일본대사관 정문을 지키는 전경들의 숫자가 시위 참석자보다 많다. 그러나 일년에 하루는 조용한 수요시위가 시끌벅적해지는 날이 있다. 바로 광복절이다.

보통 많은 이들은 정신대 문제를 민족문제로서 바라본다. 정신대 문제는 '근본부터 야만적인 일본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한다

정신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놈들' 의해 벌어진 민족의 비극이므로 할머니들의 투쟁은 광복절의 이슈거리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본제국을 따위는 쓰지도 말고 국일(克日)할 것을 외친다. 그러나 분명히 정신대 문제에는 민족 간의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언젠가 베트남 여자들도 한국정부에 우리들처럼 소송할 날이 올게다.."

나눔의 집에 계신 김순덕 할머니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신대 문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신대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 자신과 상관없이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던 몇가지 이야기에 주목하기로 하자.

-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과 영국군에는 '이동사창가'라는 것이 설치되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군도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여성을 붙잡아 위안부를 만들었다.
- 아리아인의 순결한 씨를 심는다는 명목으로 나치인들은 수많은 유대인 여성들을 강간했으며, 얼마 전 보스니아 내전 중에도 '집단강간캠프'가 발견되어 세계적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이태리 남성들은 전쟁이 계속되어 식량이 떨어지면 자신의 아내를 적군에게 팔아먹기도 했다.
- 베트남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가해자 중에는 당연히 한국군들도 포함되어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은 합법적인 매매춘과 강간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며, 한때 이 나라 정부는 이곳

언제나 남성들은 성욕을 채워야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남성적 패권주의가 중폭된 결과물인 전쟁에서 여성들을 군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쟁필수품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들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들'로 칭송하고, 미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정신대 문제는 '근본부터 야만적인 일본놈들'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위에 나열한 각각의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건들이 아니며 정신대 문제와 함께 다양한 통로로 남성 집단에 의해 약자로서 대상화되고 성폭력을 행사당하는 여성들의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전쟁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된다. 그 중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회 꼴로 일어난다는 강간건수는 제쳐두고라도 여성들은 언제나 밤거리를 걸을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아무일 없이 지나쳐 가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여성들은 두려움으로 위축된다. 밤거리를 벗어나 보자. '여자답고 센스있게 유머로 넘겨야 하는' 술자리 음담패설부터 작년 한총련범

민족대회에서 전경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까지 가부장과 가부장 권력의 집합체인 공권력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통제하고 강간해왔다. 언제나 남성들은 성욕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남성적 패권주의가 중폭된 결과물인 전쟁에서 여성들을 군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쟁필수품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잠깐 정신대 할머니들의 귀국 후의 삶을 생각해 보자. 그녀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강간을 성관계로 사고하는 가부장제 안에서 그녀들은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몸을 버리고 순결을 빼앗긴 것이었다. 순결은 여성 최고의 덕목이고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녀가 팔리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심지어 더러운 일본놈들에게) 몸을 더럽힌 그녀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피폐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 정신대 문제는 그 '부끄럽고 치욕스런' 성격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제기조차 되기도 힘들었던 것이다. (65년 한·일 협정에서도 정신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정신대 문제가 실리지 않는다고 소리높여 비난할 때 우리의 국사교과서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전선을 그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 사고를 지배해왔고, 일상의 곳곳에 잠복해 있는 가부장적 명령을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묻혀져 왔던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발굴하고 해결해내는 작업. 그 첫발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정신대 할머니들과 이 땅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나가고 이거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정신대 문제,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정신대 문제는 1980년대 말 여성단체들에 의해 문제제기되면서 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자 증언과 함께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되었다. 90년 11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교회연)에서 파생된 정신

대연구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함께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결성하고 정신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정대협은 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1회 정기 수요시위를 시작하였고 현재 까지 매주 수요일 12시면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정신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이후로 7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할머니들께서 수요시위를 시작하신 지도 5년이 지났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도 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65년 한·일 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배상청구는 허용하며 돕되,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공식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가해국답게(?) 기만적인 '국민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할머니들의 생활고와 무지를 이용해 할머니들이 '국민기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은 초기에는 주로 우리 정부와 일본 국내법에 의한 소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정세는 대부분 2차 대전의 전범들이 처벌되지 않고 그대로 체계를 유지하였고(우리 나라도 별 다를 바 없다)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 국내법을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 우리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정대협은 이 문제를 유엔 등을 통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현재 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여성단체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보고관 쿠마라스와미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내부에서 그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보고서에서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개념화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성단체들과 피해국 여성들의 연대이다. 전쟁 내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해결해내고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이들은 바로 피해 당사자들과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인 것이다.

료공개, 사회, 법적배상, 교과서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에게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사실 유엔 자체가 그리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 또한 유엔을 상대로 한 일본정부측의 로비가 상당한 관계로 국제법을 통한 문제 해결도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성단체들과 피해국 여성들의 연대이다. 전쟁 내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해결해내고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이들은 바로 피해 당사자들과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인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의 정신대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이다. 더욱 더 슬픈 상황은 이 문제

가 사כל백적하게 이슈화되고 몇년의 시간이 흐르면 서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이 문제가 더이상 '이슈거리'가 아닌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마 혼혈머니의 이야기가 터지지 않았다면 올해 뉴스에서 정신대 문제를 찾기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여론이 식기 시작하면서 운동 자체 내의 열기도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할머니들의 연세가 대개 80세 전후이시다 보니 하루하루를 기약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분의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분명히 끝은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하며 힘을 다잡고자 하는 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니는 무게감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이기면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처음'을 만들어 내는 작업. 자, 이제 우리의 소명 의식에 두 눈을 번쩍 떠야 하지 않을까?



최근 정신대 문제의 동향...

일본의 '민간기금' ('국민기금')에 대하여

민간기금이란 일본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일본 국민의 성금형식으로 모여진 기금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가지고 '일본이 전에는 인정도 안 했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어디냐'며 이를 하나의 성과라고 자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민간기금의 구체적 성격을 살펴보면 선불리 이를 어떤 '성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민간기금은 아직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의 사과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전국민적 문제 인식과 사과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공식적인 잘못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이것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민간기금이 하나의 무마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즉, 실제적으로는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부 국민의 돈을 전달하여 무언가 배상이 된 듯 여기게 함으로써 정신대 사건을 무마하려는 외교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에 한국 측에도 일본 측에 공식적 잘못인정과 사죄를 요구할 때도 문제가 된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국민의 돈을 전달했으니 배상이 되었는데 왜 자꾸 과거지사를 들먹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문서에도 일본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얘기는 실려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잘못 인정이 없었으므로)

현재 민간기금을 받은 할머니는 생존해 계신

(지금까지 파악된) 정신대 할머니 158분 중 7분이라고 한다. 일본 측에서는 좀 더 많은 할머니들에게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민간기금의 명목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할머니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데다가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만족스럽지 못해, 무작정 민간기금을 거부하시기에

도 어려운 상태이다. 전부터 정대협 주관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이 있어 온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간기금 속에 숨겨진 일본의 외교적 술책을 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도 잃지 말아야 하겠다.

2대 여성위원회 정신대 문제 관련 활동일지

■ 97년 2월 강덕경할머니 장례식

97년 2월 5일, 우리는 강덕경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강덕경 할머니, 당신께서는 가난한 한 몸으로 이 역사 속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가를 용감하여 보여주셨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의치신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minority인 여성임을, 그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 3월 페미니즘문화제 자료집

「다시 읽는 성담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도 일본여자를 강간하자!

■ 6월 수요시위 참가단 모집

■ 7월 수요시위 참가단 교양과 나눔의 집 MT(7월 8/9일, 1박 2일)

여성위원회는 학부생이라는 점때문에 학기 중에 수요시위를 참가하기 어려웠던 이화인들과 방학 때 만이라도 함께 수요시위를 함께 하고자 수요시위 참가단을 꾸렸다. 비록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진 못했

지만 나눔의 집에서의 정신대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1박 2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늘상 영화에서나 혹은 사진을 통해서만 뵈던 할머니들과 하루저녁을 같이 보내면서, 새벽 발일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수요시위를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나누던 이야기에서 들게 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할머니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었다.



■ 8월 이화여성위원회 수요시위 주관

여성위원회는 8월 6일, 276차 수요시위를 주관하게 되면서 8월 첫주(8/3~6)를 수요시위 '이화인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8월 5일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교양 : 학생관 전시실

8월 6일 수요시위 주관

별첨 1

276차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 '92년 1월8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정신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인 수요시위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시위를 계속하여 오늘 276차 수요시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쟁 성노예로서의 삶을 강요했던 잔혹한 역사를 고발하고,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앞으로 세계사에 다시는 이같은 잔혹한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운동단위들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식인정과 사과를 표하지 않고 있으며, 기만적인 국민기금을 조성하여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당연히 사죄와 배상, 처벌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굴욕적인 한일 외교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교과서에서조차 이 문제의 진상을 올바르게 수록하지 못하는 등의 수치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쟁시에 성노예로 전락하는 '여성'이라는 것이 정신대 문제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지위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일본 정부와 뻔뻔스러운 태도와 남의 일 보듯하는 한국 정부의 방관적 자세, 그리고 국제 여론의 미온적 반응 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현 남성패권주의 사회속에서 여성의 몸짓들이 얼마나 소외되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문혀져왔던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발굴하고 해결해내는 작업, 그 첫발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정신대 할머니들과 이 땅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끝까지 가져나가고 이거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졌다. 정신대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여성'이란 이름으로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이 흐름은 남북한, 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역의 억압 받는 여성들에게 이어져, 여성이 늘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남성권력세상에 대항할 것이다.

1997년 8월 6일

이화여성위원회와 276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침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기만적 국민기금 즉각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사실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하라!
-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관계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위안부 범죄에 대해 적극적 해결의지를 표방하라!
- 성노예제도를 뒷받침하는 남성패권주의 물러가라!

별첨 2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드리는 편지

불과 몇 주전에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여한 저였기에 그 날의 할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듯합니다.

더운 날에도 밝게 웃고 계시던 할머니, 그러나 구호를 외칠 때엔 단호하시던 할머니, 땀을 닦으시며 점심을 드시던 할머니. 할머니의 모습의 단상들이 잊혀지진 않는 건 그저 할머니와의 만남이 처음이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책으로만 보았던 할머니의 경험을, TV에서만 보았던 할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로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일본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북돋워 드리리라 생각했던 저는, 희망의 웃음을 드리고 싶었던 저는 작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당하신 할머니의 모습에, 또 밝게 웃어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것도, 희망을 얻은 것도 저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작지만은 않은 목소리가 매주 일본대사관 앞을 메운지도 5년째입니다.

할머니,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얻었을 때, 언젠가 할머니의 아픔에 대해 그들이 뉘우칠 때, 그런 수요일이 되면 함께 외출하고 싶어요. 일본대사관 앞이 아닌 멋진 곳으로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런 수요일이 올 때까지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항상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할머니 걸음 항상 저희가 함께 한다는 것ですよ.

1997년 8월 6일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녀, 지연이가 드림.



Women In Cyber Space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운동

이화여성위원회

“여성운동은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도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제기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세계가 정보화 사회로 치닫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의 과정이었다. 이제는 정보화라는 단어가 마치 예전부터 늘 있어 온 듯이 친숙하게 들리며, 어느새 사이버



제안을 해왔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활용은 여성에게 유용할 방식일 것이라는 점이고, 이와 같은 맥락하에 정보사회

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여지므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기존 사회의 논의들 이외에도 여성들 스스로가 사이버스페이스에 갖는 환상 역시 존재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존의 리얼스페이스와는 '다른' 세계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고, 자유로움과 평등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들이 사이버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각 속에 포함된다.

페이스는 모두가 몸담고 있는 공간인 양 인식되어지고 있다. 분명 우리는 또 하나의 큰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른바 '정보화 혁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은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혁명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통신매체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는 우리 나라에서는 95년도에서야 비로소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이후로 줄곧 신문, 잡지, 학보 등 거의 모든 인쇄매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솔깃한

그러나 과연 사이버스페이스란 무엇인가. 정보화 사회 속의 인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난 신인류가 아닌 이상, 기존의 관념과 사회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리얼스페이스의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권력관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여성이 오히려 리얼스페이스에서 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통신매체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 pc통신 인구의 20% 정도가 여성이라는 통계를 접할 때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도래가 여성에게 리얼스페이스보다 더한 억압의 공간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 자체가 갖는 특징들로 인해 더 확대된다.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사이버스페이스 한의 여성을 직시해 보도록 하자.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여성

1) 여성관련 사이트들을 통해

속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여성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인터넷에서의 여성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여성관련한 상품정보나 육아나 외투니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은 찾을 수 있지만, 여성주의 관점으로 여성들이 만든 사이트를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올해 들어서야 몇몇 여성단체들이 이 영

역에 있어서의 활동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femi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부실한 상황이다.

또한 PC통신에서 여성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공간을 찾아보면 각 통신망의 한두 개의 여성전용 혹은 여성주의 동호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념과 사회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리얼스페이스의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권력관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여성 동호회

하이텔 - '페미니스트들의 천국' (go femi)
여성전용 대화실 (go wchat)
천리안 - '여성학 동호회' (go femi)
'주부동호회' (go jubu)
나우누리 - 여성전용 동호회 '생의 한가운데' (go miz), '여성주의 문화연구 모임' (go ssociety 2)

여성분과가 있는 공간

하이텔 -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go barun),
천리안 - '희망터' (go pp),
참새상 - (01410 접속 후 '참새상')



여기에서 우리는 '공간'의 문제에 접어들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의 논의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앞서 얘기한 여성 공간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그 광활한 공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만큼도 안되는 작은 공간이다. 이 영역은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는 이화대동계 때의 고대집단성폭력사건을 상기시킬 수 있겠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이화가 '여성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화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여성 공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물었다. 사회의 여성에 대한 논의들, 여성 존재를 보는 시각,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남성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이다. 이 사회에서 이화와 같은 특수, 그리고 소수의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남성의 것이다. 이화가 여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유도, 사회에서 몇 안되는 '여성 공간'의 필요성과 그것이 갖는 힘을 믿는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여성의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다.

2)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과 검열 논쟁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의 문제에 관련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있는 '사이버스페이스 검열 논란'은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여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사이버 음란물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사진이나 그림, 음성, 동영상, 게임 등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통속도가 빠르며 손쉽게 재가공할 수 있다. 또, 적은 제작비로 전세계에 배포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과 더불어 개인이나 소수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단체의 목소리를 담기에도 효과적이다. 그 외, 이용자들의 야한 대화인 '킵섹'도 포함된다.

이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음란물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리얼스페이스 안에서 살아온 경험상 뻔한 일이다.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천"이란 말대로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도 여성은 쉽게 대상화되어지고, 비하되기 일쑤다.

국내 PC통신을 보면 올라오는 게시물들의 다수가 여성 비하와 성의 상품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순간적인 사이버스페이스의 특

성과 연결되어 아주 감각적으로 이슈화되어지며, (조희수와 같은) 그 안에 어떠한 신중한 논의나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최근에 있었던 나우누리 연세대 익명게시판사건만 보더라도,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비하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그 공간을 접해본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등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한 검열철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목소리만이 들릴 뿐,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히 사이버스페이스가 현 권력체들의 힘(남성-국가로 대변되는)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열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검열의 중재자는 국가(결국 여성이 될 수 없는)이다. 사례를 통해 보면 신정모라 사건이 있었다. 천리안에서 신정모라 씨의 '유방은 행진한다'라는 글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음란하다고 하여 아이디를 삭제당한 사건이 있었다. 통신의 어딜 가나 남성들에 의해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되어 돌아다니는데, 단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여 아이디를 삭제당한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여성을 위한 공간을 찾아보는 것과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리얼스페이스를 대체하게 될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거대한 세계속에서 여성이 현재 처한 위치를 살펴보았다.

대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위기에 처한 만큼 난감한 상황이며 또한 미래를 점치기도 힘들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성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운동은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도 확장되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운동을 어떠한 방식

이화가 여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유도, 사회에서 몇 안되는 '여성 공간'의 필요성과 그것이 갖는 힘을 믿는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여성의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다.

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 보자.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 자체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맞추어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사이버스페이스의 도래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수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여성들이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진보통신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킵섹'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자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활동을 펼치기도 하는데, 실상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남성들보다 정보매체를 접할 기회에 있어 많은 장애가 있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 교육의 확대가 요청된다. 어찌 보면 통신을 활용이라

는 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며, 온라인 상에서 펼쳐는 장인 만큼, 주부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리얼스페이스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무대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와 그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저 사회가 떠다미는 형식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환각적 복음에 몸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화 하고,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유력한 강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활동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남성들의 커다란 영역 속에서 내몰리며 떠도는 여성들이 모일 다양한 여성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들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과 여성주의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일 수 있는 효과적인 여성운동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마치 '이화'가 그 말이 액면 그대로 진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성운동의 메카'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방식에 비추어볼 수 있겠다. 여성들이 여성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의'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 즉 '분리주의'를 채택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통해 얻어지는 힘과 담론들을 이 공간 밖으로 표출해 내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겠다.

자, 여기서 마지막 정리문구로서 한가지 대안을 던지고자 한다. 이러한 위의 통신운동들도 사이버스페이스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한다면 다음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바로 사이버스페이스는 어떠한 실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펼칠 만한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우누리에 '제2정무장관실'이 생겨 사람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단지 외침에 불과할 뿐 그것이 실제적 장에서 펼쳐지는 확률은 거의 0%이다. 토론장에서 여성관련 주제들로 벌이는 논의들도 단지 자신의 의견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다시 리얼스페이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여성들의 연대가 리얼스페이스에서 펼쳐지게끔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이다. '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인 여성들은 자신의 서로 다른 지역, 사회계급,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는 리얼스페이스에서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일정한 커리를 쌓은 여성이 리얼스페이스의 여성운동의 흐름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간다면 전지구적으로 여성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들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사회에서 혁명의 시기는, 그 다음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혁명들이 그러했고, 그 혁명들 이후에는 분명 사회체계의 변형과 함께 구성원들 간의 권력구조의 변동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경악할 일은 그 관점에서 여성은 한 번도 높은 위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고 진행시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성이 부재할 리 만무하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유명한 남성 혁명가들의 이름에 묻혀져 있다.

여성이 '소수'여서 차별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편견이다. 여성은 '소수'여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당하기 때문에 '소수' 집단인 것이다. 즉 현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람들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사회가 형성될지라도 그 속에서 여성은 늘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앞선 사회의 혁명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혁명, 정보화 혁명(일명 인터넷 신드롬) 속에서의 여성의 존재가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여성이 또다시 인류 역사 속에서 다른 영역과 방식으로 억압당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리얼스페이스를 대체해 간다고 보여지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리얼스페이스를 대체해 간다고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않지만 막대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지닌 그 세계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현시점 우리가 처한 문제이며 대처해야 할 요지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않지만 막대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지닌 그 세계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현시점 우리가 처한 문제이며 대처해야 할 요지인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나의 권력이다. 우리는 이 광대한 영역에서 다시금 패배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화를 고민한다



웹에서의 내집 꾸미기

'손님맞이의 구성으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자'

이번 호에서는

웹에서 '인사이드 스타일링'을 할 때 필요한

'인사이드 스타일링'의 개념과 실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저자: 이화

하는 것이다. 즉, 여성은 '주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를 대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듯 단순하거나 만만하지 않은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여성들의 담론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의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부지런히 주고받으며 튼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뉴미디어가 펼쳐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어찌 보면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여성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진지를 만들어 여성학 관련한 자료들을 디지털

Internet의 여성주의 site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운동

하 람 / 이화여성위원회 95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어가 'sex'라는 것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 외국(주로 미국의 사이트들 대 상으로)의 사이트들 중에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다양하고 훌륭한 사이트들이 많다. 이는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과 인터넷 사

현재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여성관련 정보의 90% 이상이 상업적 목적을 띤 여성의 상품화와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 '여성지'라는 이름아래 출간되는 대부분의 잡지들이 그러하듯 인터넷 상에서도 화장품, 향수, 패션 등 소비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여성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익명성이라는 특성하에 남성이용자들은 여성의 누드사진, 아시아의 섹스 관광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구비한 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야후(www.yahoo.com)검색기에서

용의 대중화가 국내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45년 전부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여성동'을 통해 통신상에서 여성들 간의 정보교류, 친목을 통한 '여성주의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몇몇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 이러한 때에 인터넷 상에 있는 여러나라의 다양한 정보들은 국내의 부족한 정보에 비해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내

국내의 여성관련 사이트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기대하긴 힘들다. 심마니 등의 한글검색기에 '페미니즘', '여성주의'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성관련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등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에 활발한 여성운동을 전개해 오던 여성운동단체들이 최근 잇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그 운동범위를 인터넷 상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만든 'women21'은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링크를 확보하는 등 내실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다.

1. 한국여성단체연합(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Women21'은 평등·평화·발전이라는 UN 제4차 여성대회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천국의 31개 회원단체(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등)가 공동참여하여 이루어진 한국여성운동 네트워크이다. 올해 7월에 만들어져서 아직 방문자수는 많지 않지만 정신대문제, 그레이스백화점의 비밀카메라 설치, 동성동본간의 결혼에 관한 이슈 등이 올라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가족/여아, 노동, 성/인권, 정치, 평화/통일,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한국여성민우회(www.womenlink.co.kr)

한국여성민우회가 발간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자치여성센터, 여성노동센터, 생활협동사업본부, 일하는여성의집 등의 사업관련 자료를 싣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사와 자료집들에 실린 중요 사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어 있다.

3.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http://witness.peacenet.or.kr)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시위의 성명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법적배상에 대한 근거 등 정신대 문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4. 페미넷(www.feminet.or.kr)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본다.

한국여성단체연합(w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www.womenlink.co.kr)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http://witness.peacenet.or.kr)
페미넷(www.feminet.or.kr)
영화<낮은목소리>(www.iworld.net/Entertainment/Movie/boim)
이불(www.spiral.co.jp/bl-e.html 또는 www.bd.co.kr/artnet/artist/bullee/momarn.html)

5. 영화<낮은목소리>(www.iworld.net/Entertainment/Movie/boim)

정신대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변영주 감독의 영화<낮은목소리1,2>편에 대한 스틸사진,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6. 이불(www.spiral.co.jp/bl-e.html 또는 www.bd.co.kr/artnet/artist/bullee/momarn.html)

● 국 외

해외의 사이트들은 국내에 비해 오래된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이트들을 발견

Lesbian.org

promoting lesbian visibility on the internet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구분을 하자면 여성주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단체, 소규모의 그룹,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 등이 있고, 주제도 예술(영화, 미술, 음악,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하다.

■주소가 주로 com(commercial), org(organization)으로 끝나는 여성운동단체들은 이미 조직되었던 단체나 인터넷이 생기며 조직된 단체들로서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활동소식을 전하고 세계의 많은 여성들과의 정보교류를 꾀하며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기서 소개할 대표적인 단체들은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인터넷 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정보와 다른 사이트로의 링크(links)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초보자들이 이용하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운동은 일반운동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에게 빠른 해결책을 촉구하도록 방문자들이 형의 e-mail이나 전화를 하도록 e-mail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이트에 리본을 게시하는 것도 잘 알려진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은 전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문제를 빨리 알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줌으로 그 문제를 제시한 담당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1. www.feminist.com
2. www.feminist.org
3. www.now.org

가장 대중적이며 규모가 큰 여성관련 사이트들이다.

4. www.lesbian.org

1995년 2월에 생겨서 레즈비언 관련 사이트로서는 인터넷 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cyberdyke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상에서 레즈비언들의 존재를 알리는데 노력한다. 레즈비언에 관련된 문학, 인권운동정보, 개인적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Feminist Activist Resources on the Net(www.igc.apc.org/women/feminist.html)

강간과 성희롱, 가정내 폭력, 흑인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건강,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링크모음이다.

6. The one minute activist(web.mit.edu/sirothen/www/women.html)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운동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제안할 수 있는 곳. 매우 재미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풍부하다.

7.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www.nmwa.org)

1960년대 여성, African Americans, 소수민족 미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고 이후 계속된 활동 속에 80년대 여성미술가들을 위한 미술관 설립이 Nancy Hanks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81년 10월 NMWA가 세워졌다. 이들은 여성미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입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백인남성미술가들에 의해 가려졌던 여성미술가들을 새롭게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전,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Library and Research Center의 운영, 여성미술가들을 지원한다. 홈페이지에는 NMWA의 컬렉션, 컬렉션에 대한 자체 검색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전시회에 관한 정보 등이 실려있다.

8. yOni(www.yoni.com)

필자가 발견한 상업적인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이트다. 상처받은 여성의 심리를 샴버니즘 그림을 통해 치료하거나, 에로틱하고 아름다운 시, 그림, 음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규모의 단체나 그룹이 만든 사이트들은 주로 새로운 여성예술가들을 소개하거나 개인의 순수창작물을 올리기도 하고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를 webgne의 형태로 발행하기도 한다. (웹진이란 web과 magazine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발행되는 잡지를 의미한다) 이들의 여성주의, 음악, 영화, 미술, 문학, 신화 등에 대한 문화적 욕구는 그동안 가려졌던 여성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여성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운 창작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 www.voyagerco.com/gg/gg.html

Guerrilla Girls는 여성차별에 대항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여성미술가들의 그룹이다. 이들의 활동은 이론과 실재가 가장 강력하게 결합된 정치적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면보다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고릴라 모양의 가면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페미니스트들도 재미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10여년 동안 이들은 미술계, 거대한 문화 속에서 벌어

www.feminist.com
www.feminist.org
www.now.org
www.lesbian.org
Feminist Activist Resources on the Net(www.igc.apc.org/women/feminist.html)
The one minute activist(web.mit.edu/sirothen/www/women.html)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www.nmwa.org)
yOni(www.yoni.com)
www.voyagerco.com/gg/gg.html

지고 있는 여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를 폭로하기 위해 70여개의 포스터제작, 프로젝트 실행을 해왔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의 대답은 "We could be anyone, we are everywhere." 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그들이 제작한 포스터, 활동내용 등을 볼 수 있다.

2. Film and Destroy (www.sirius.com/~otterfd/filmdes1.htm)

여성에 관한, 여성을 위한 독립영화들(8,16mm film)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형성된 영화에서의 여성혐오주의(misogyny), 부정적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의 스틸사진, 감독과의 인터뷰

류, 영화이론 등이 실려있고 최근엔 Sadie Shaw(horror movie를 좋아하며, horror movie에 가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로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꾼 영화를 만들었다)감독과의 인터뷰, 헐리웃 영화에서의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다.

3. Women & Performance(www.echonyc.com/~women)



춤, 영화, 문화, 인종, 섹슈얼리티,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아카데미한 에세이, 인터뷰, 논설, 기사를 다룬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잡지의 홈페이지이다. 가장 최근호인 17호는 섹스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의 육체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다.

4. Anarcho-Femminism (www.geocities.com/paris/2159/anrfem.html)

아일랜드의 무정부주의(anarchist)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이 지배적이어서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한 운동이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리, left&women's liberation, Women in the Spanish Revolution, anarcho-feminist에 관련된 책들, 기사가 실려있다.

5. Feminist Science Fiction, Fantasy & Utopia(www.uic.edu/~lauramd/sf/femsf/html)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공상과학물들 중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작품들에 대한 사이트이다.

6. Women Folk (www.womenfolk.com)

여성들이 자신의 창조성을 키우고 영감을 얻도록 준비한 곳. 오랜기간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지 못하는 대신 딸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전해 주었다. 이러한 전통을 살려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만든 시, 음악 특히 '할머니' (어머니)을

위한 시들이 실려있다.

7. Quilt (www.nb.net/~maryann)

퀼트는 최근에 와서야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정교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고 매우 아름답게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집안에 있던 여성'들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퀼트를 인터넷 상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Mary Ann의 퀼트에 대한 애정과 작품들, 인터넷 상에서 퀼트를 통해 전해진 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8. Animation & Short story(www.users.interport.net/~xmef)

여성이 만든 애니메이션, 단편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개인이 만든 사이트나 특정 여성미술가들에 대한 사이트를 소개한다.

1. All men must die!(www.kfs.org/~kashka/ammd.html)

제목에 걸맞게 이 사이트는 검은 바탕에 빨간 텍스트 그리고 총, 폭탄, 가위 등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나쁜 사이트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만 한달에 10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방문한다. 만든이는 95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녀 자신도 이 사이트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 그녀는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메일을 받았고 이를 정리하여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남자들은 주로 '당신은 레즈비언일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만일 내가 <All Women Must Die> 페이지를 만든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나?'라는 메일을 보내오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자도 있다.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과격한(?)내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편할 것 같다.

2. Virginia Wolf(www.aianet.or.jp/~orlando)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출판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다.

3. Frida Kahlo(members.aol.com/fridanet/kahlo.htm)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유명한 여성화가이다. 어렸을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지속된 신체적 고통(자궁의 훼손, 연속된 아이의 유산 등), 파경으로 끝난 남편(남편역시 유명한 화가)과의 결혼생활 등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 소개된 곳 외에도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어(keyword) 하나만으로도 그 주제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용한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찾으려면 적절한 검색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우리가 미술책에

여성주의 영화, 음악, 그림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인터넷을 사용해 보면 이미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절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홈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본 많은 그림들은 거의 100%가 남성화가들의 그림이고 그나마 알고있는 여성미술가도 거의 없다. 그러나 문득 여성미술가들의 그림을 보고 싶다면 검색어로 'feminism and art', '여성주의 미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앞에 소개된 Frida Kahlo, 이불 외에도 Shindy Sherman, 윤석남 등의 여성미술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성주의 영화, 음악, 그림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인터넷을 사용해 보면 이미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절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홈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인이 만든 여성관련 사이트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외국의 사이트를 많이 방문해 본 후 자신이 직접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통신 소리통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제목 : 나 이름 없어요!

96/10/17 16:14 읽음: 27 관련자료 없음

지난 여름 농활 때의 기억이 살아난다.

여성반... 운영을 할 때,
우리는 감자를 썰 가지고 가서는,
모여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했었다.

가기 전에 선택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니,
'이름 부르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
우린 아주머니들께 이름을 여쭙기로 했다.

아.....!
그래,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이지, 아주머니들은 당신들의 삶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잊어가고 계셨다.

그 중 제일 젊은 아주머니께
이름을 여쭙었더니,
너무너무 쑥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이나,
"나 이름 없어요." 라고.

이름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여성이란 무엇일까.
이 사회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 아닐까.

제목: 취업과 여대생들

96/10/15 21:47 읽음: 56 관련자료 없음

오늘자 여성신문 기사로,
'취업과 여성'에 대한 기사가 났다.

통계치에 따르면,
'여대생들이 취업이 목전에 다다라야 관심을
보인다'는 결론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 계절학기 때 들었던
여성학 강의에서, '취업' 부분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데,
우린 당장 코 앞에 닥칠 일임에도
너무도 취업 문제와 사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무심하고, 무지했다.

우선 나부터도.

지금, 취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이어서,
더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우
린 너무도 무방비 상태이다.

바로 우리의 일인데 말이다.
취업 정보, 일터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직장 성차별의 문제 등.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목: 여자몸매의 맥주잔

96/11/17 00:11 읽음: 109 관련자료 있음

말로만 듣던 여자몸매를 가진 맥주잔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볼록 나온 가슴과 잘록 들어간 허리
다시 튀어나온 엉덩이로 이어지는
맥주잔을 남자들은 좋다고 마신다.

그 맥주잔은 손잡이도 없다.

여자의 잘록 들어간 허리를 잡고 마신다.
가슴과 엉덩이를 양쪽에 가까이 두고 말이다.

그 속에 끼여져 있는 몇명의 대항할 수 없는
여성들.....

대학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남성들의 문화에
익숙해 져야 한다지만.....

난 다른 잔을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단지 여자
친구에게 이게 뭐냐고 불평할 만한 용기 밖에는.
원만큼 익숙해져 있는 남성위주의 대학문화에
이런 식의 말로만 듣던 일에 직접 마주치게 되면 뭐라
고 말하기에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같이 웃어버리고 마는 나...

내가 싫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 '예식장'이란 곳

97/04/27 01:05 읽음: 32 관련자료 없음

결혼식의 주례사 또한 가련하다.

지금껏 들어본 주례사에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얘기.

"남편은 남자답게, 아내는 여자답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시댁을 늘 생각하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이란 미명하에 이렇게 구체적인 '억압'과 일방적인
'권력관계'의 종용이 아무렇지 않게 강요되는 장인
것이다.

그것도 서로의 축하와 미소 속에서.

제목: 어제밤 지하철 풍경

96/10/11 11:43 읽음: 32 관련자료 없음

막차타고 집에 오는 길.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주위가 너무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루 졸 수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어른 한 대어섯의 남자들이

지하철이 마치 자기네들이 전세낸

곳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다.

"무장공비가 어찌구... 술이나 치먹구... 어찌구..."

그러더니만, 급기야.

남자들의 영원한 자부심,

'군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찌구..."

"난 육군 장교로 있었는데..."

하.하.하.

그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본 사이였다.

군대 얘기가 나오니, 지하철 안의 남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얼마나 뜨거워졌다면,

그 수컷 주위의 여자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급기야 서 있던 사람들은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기껏 얻은 자리인지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중년 남성네들의 '소위 정치적인' 이야기라 일련

는

별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다.

정신 사납게 시끄러웠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뻔뻔스러움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씨네 21 광고 중

우리는 왜 3천원이나 되는 문화제자료집을 찢어내야 했는가

스폰대행사에 스폰을 부탁하고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을 만들어 드디어 자료집을 받아보던 날,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다이어트 식품, 성형외과에 식욕억제제까지,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대행사를 통해 실게 되는 광고라 우리의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자료집을 받아보기 전까지 실제로 어떤 광고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광고가 실린 자료집을 받게 되었다. 이미 페미니즘 문화제가 있기 전, 연대 여성자치연합에서 주최한 행사의 자료집에도 이와 비슷한 류의 광고들 다이어트용 상품광고가 들어와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들어오는 광고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면을 읽을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물이다.

이 사회에서 남성만이 오직 확고부동한 자기(self)를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다. 소유하는 것은 남성의 권리이며 그의 권력을 구성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남성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켜간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주류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주체적 자기를 가지지 못한 물로, 대상으로 존재한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서 그의 사회적 위치를, 그가 가진 권력의 질을 나타내주는 존재이다. 멋진 자가용과 좋은 술을 가지는 것과 늘씬한 글래머 미인(남성들의 기준으로 정형화된)을 얻는 것은 동일한 일인 것이다.

LG생활건강



누드스타, 페미니스트?

이성찬 글·김민정, 이승희 한국방송 55집단지 협소물



반영이 아니라 반영의 현실이다'라는 말처럼 광고와 여타의 미디어는 지배권력이 원하는 바대로의 현실을 그들의 종속자에게 진정으로 그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여성들은 과시하기 위한 소유품, 인격이 아닌 물로서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신의 육체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킨다.

한참 이승희 신드롬이 일고 국내에 누드집과 CD롬이 발간되었을 때 서점가에서 그녀의 누드집과 CD롬을 들춰보던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여성이었고, 가슴을 크게 만든다는 마사지 크림이 불타나게 팔렸었다.

기존의 가치를 내면화한 여성들은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

시키는 지배적인 남성의 시선으로 다른 여성의 육체를 바라보고, 또한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육체들을 강박적으로 비교하고 바꾸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늘상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일상이 되어 버린 것들,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에서 광고를 찢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그 끔찍한 시선들을 같이 찢어버리고 싶었던 건 비단 자료집을 만든 우리들만이 아니었으리라.

Q & A 커리어 클리닉

지방 흡입을 통한 몸매 만들기



미시족 현재는 소문이지만 앞으로는 날아오는 세상에 대해...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 흡입을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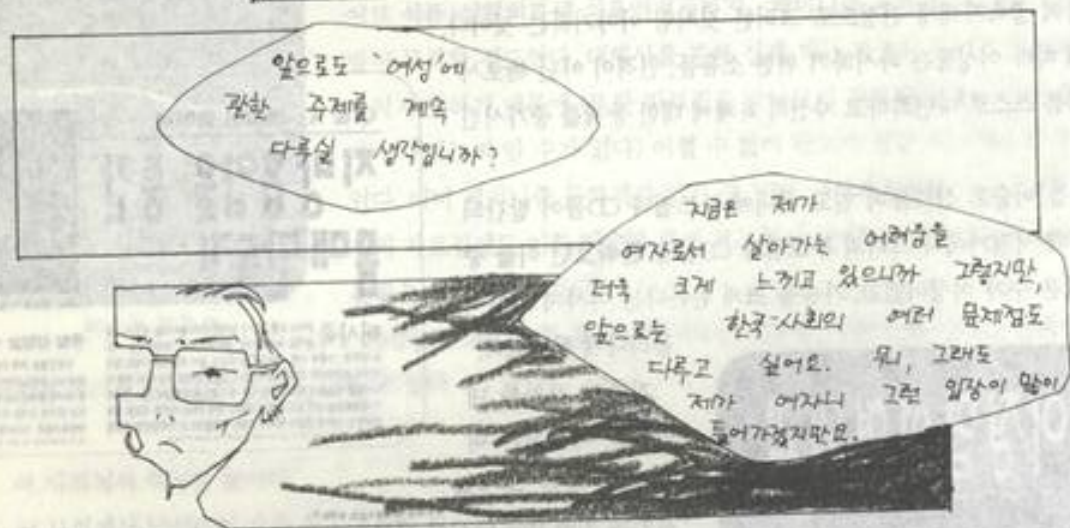
유정 성형술 유정성형술은 크게 유정성형술과 유정성형술이 있다. 유정성...
유정성형술은 크게 유정성형술과 유정성형술이 있다. 유정성...
유정성형술은 크게 유정성형술과 유정성형술이 있다. 유정성...

이정엽성형외과

이정엽성형외과
이정엽성형외과
이정엽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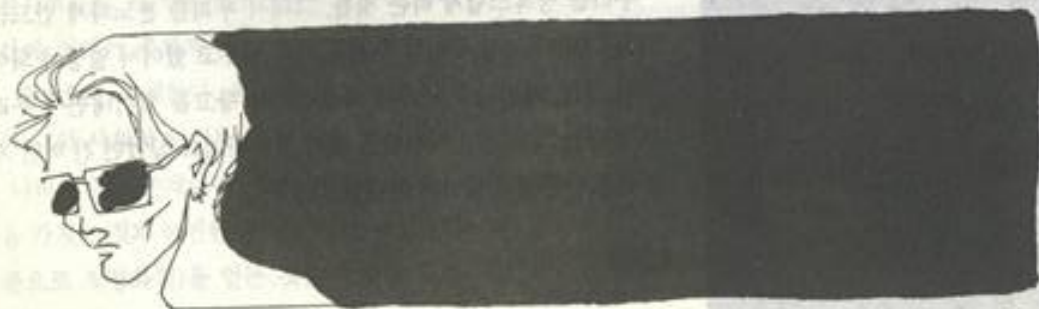


여성주의 만화



Feminist Coming Out

글·그림 / 모기(이화여성위원회 94)



Feminist Com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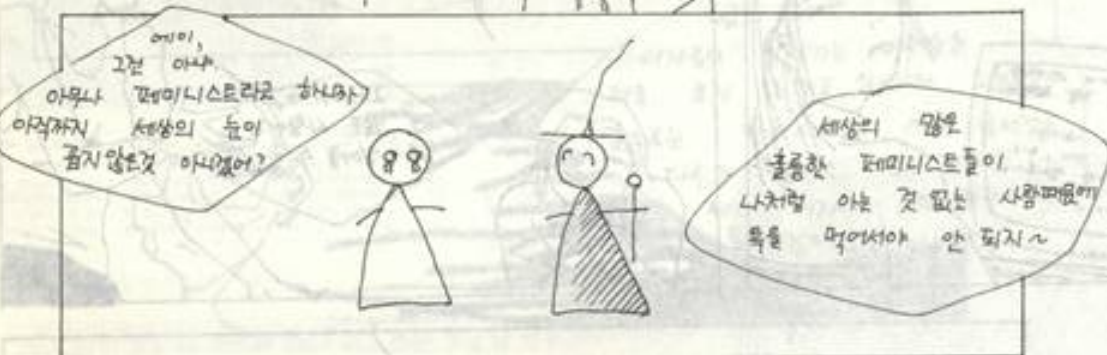


여성주의 만화



전 그저 여자로
태어났을 뿐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풀어야 하는 거요.

그럼 넌
페미니스트니?



아니요.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예요.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요.

예를 들면
누가 있지?

오,
말씀이야~



Feminist Coming Out



궁금한 건 ...
니였어.

내 삶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페미니스트는
말리 말리지
있는 유명
인사가
아니었어.

내가 바로
페미니스트
임가아!!!



Oh, Yeh ~!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실수 많지만, 사랑스러운
페미니스트라는 것 ...
뭘 어쩌? 넌 페미니스트니?

2대 이화여성위원회는 총회를 맞아
현재 이화가 가진 고민들,
이화에서 여성운동이 갖는 의미와 그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여성위원회는
앞으로 이화에서 이화의 고민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이화인들과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화를 고민한다 1
이화를 고민한다 2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feminist coming out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성권력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듯이,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들로 인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지칭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으로 '페미니즘'을 기반한 운동을 펴기려 한다.

이화여성위원회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렇지만..."으로 시작되는 여성운동가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점하고 있는 왜곡된 자리를 읽어 낼 수 있다. 여성운동가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활동을 떠나 감에 있어 '페미니즘'을 이론적 토대로 기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체계 및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사회문화전반에 깔린 주류 담론들이 '여성'을 기치로 내세운 그 어떤 것에도 가면과 족쇄를 씌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인 것일는지 모른다.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에 여성억압에 대항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의 관점을 통해 이 사회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는 '여성운동'과 '여성운동가'라는 용어를 많은 편견들 속에서 견뎌내 스스로의 비판과 성찰을 통해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가려 한다.

여성운동에 대한 이화인의 지각과 인식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는 여러모로 굴절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로는 남성들보다 못하다는 자 격지심에서 온갖 편견을 갖고 목소리만 높이는 여성들로서 폄하되거나, 혹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예인 양 이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제국주의의 산물 이거나 중산층 여성들의 이기적인 운동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우리는 이화의 어떠한 가능성을 읽어볼 수 있었다. 이화는 기존의 왜곡된 인식을 속에서 헤매이면서도 꾸준히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자아비판을 통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화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민들이 때론 사회가 주입한 개념과 여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험들 속에서 얻게 되는 개념들 간에 자기모순이라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끝없는 충돌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민들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앞의 견해들이 갖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개념에 대한 편견은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성 스스로의 눈에 의해 평가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보다 명확한 것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과 경험이며, 그러한 경험들이 곧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성권력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듯이,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들로 인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여성억압에 대항하고 여성으로서의 정

feminist coming out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성 공간에서 여성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화.

이 공간을 발판으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회,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바라본다.

제성과 여성의 관점을 통해 이 사회에서 바로 서고 자 하는 우리는 '여성운동'과 '여성운동가'라는 용어를 많은 편견들 속에서 견뎌내어 스스로의 비판과 성찰을 통해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가려 한다. '3차 성정'이란 과정을 통해 페미니스트로서 태어난다(feminist coming out)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 하나 하나의 다양한 입지와 환경들 속에서도 '여성'이란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빈도차는 있겠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여성 억압의 경험들을 생성시켰으며 이것을 우리는 '3차 성정'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억압의 경험들은 필연적으로 억압철폐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움직임들이 새로운 대안 문화, 새로운 사회를 창출케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지칭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으로 '페미니즘'을 기반한 운동을 펴 가려 한다.

누구든 기존의 편견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도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더욱 험난하게 하고, 언제고 많은 편견들 속에 스스로 묻혀 버리게 될 위험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여성'이기에 그러한 노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과 평가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때론 그것이 운동해 나아갈 힘을 소진시킨다 해도 우리는 기존의 편견들에 묻혀 '페미니즘'을 선불리 재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페미니즘'의 필요성과 그 힘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성의 공통적 체험인 '3차 성정'을 갖는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여성 공간에서 여성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화. 여성학의 메카라 불리고 현재 활동하는 여성운동가의 90% 이상을 배출해 온 이화에 우리가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이 공간을 발판으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회,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바라본다.

이화인이 생각하는 여성운동과 이화여성위원회

이화여성위원회는 여성문제 및 여성운동에 대한 이화인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화여성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이화인의 의식과 여성운동에 대한 이화인의 인식, 그리고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화인 700명을 대상으로 9월 첫째주 중에 실시되었으며 총 548부가 수거되었습니다. (본교 사회학과 합인회 교수님께서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여성문제 및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1. 우리 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에 대해 1번으로 답한 사람은 28.08%, 2번으로 답한 사람은 23.4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51%가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문제를 얼마나 자주 느끼게 됩니까?

- ① 항상 느낀다. ② 자주 느낀다.
- ③ 가끔 느낀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위 질문에 대해서는 2번과 3번이 각각 44.88%, 42.09%의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보아 여성문제를 느끼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 문제를 어떤 계기로 인식하게 됩니까?

- ① 직접 체험을 통해 ②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③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④ 기타 ()

대부분의 응답자가 23번으로 답했고, 직접 체험을 통해 여성 문제를 인식한다는 응답자는 23.66%에 그쳤다.



4.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여성억압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녀의 선천적 능력 차이의 결과
②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의 여성전담
③ 여성의 낮은 취업률
④ 사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부재
⑤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남성우월주의 편견
⑥ 기타 ()



이 질문에 대해서는 5번으로 답한 사람이 66.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번이 16.54%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제도 자체', '지도자급 남성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 '남성우월주의 편견에 스스로 세뇌당한 여성들' 등이 있었다.

5. 여성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관심있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② 관심있고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③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은 꺼려진다.
④ 별로 관심없다.
⑤ 전혀 관심없다.



5번 문항에 대해서는 2번과 3번이 각각 45.23%, 44.85%로 나타났다. 이렇게 90% 이상의 응답자가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6. 여성운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남보다 희생 정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③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④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의 자각지심이라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해 1번에 답한 사람이 63.46%, 2번에 답한 사람이 22.12%로 여성 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7. 대학에서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해 1번에 답한 사람이 52.90%, 2번에 답한 사람이 44.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학에서의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성 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0.95%에 불과해 여성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과 활동평가

8. 이화여성위원회는 여성운동을 하는 독립적인 자치단위입니다. 이화 여성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독립적인 여성운동 기구임을 알고 있었다.
② 총학생회에 소속된 기구라고 생각했다.
③ 동아리나 소모임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④ 이름은 들어 봤지만 잘 모르겠다.
⑤ 들어 본 적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번이 27.16%, 2번이 27.76%, 3번이 18.91%, 4번이 21.33%로 각 보기별로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이화여성위원회를 총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학생회에 소속된 기구거나 동아리나 소모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화인이 상당수 있고, 이화인이 아직 자치단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할 수 있다.

9. 다음은 지난 한 학기간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적은 항목입니다. 알고 있는 지의 여부를 답해주시요.

- | | 알고 있다 | 모른다 |
|--|--------------------------|--------------------------|
| ① 페미니즘 문화제 | ☐ | ☐ |
| ②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4차테이블, 대책위원회 구성, 문침이 활동, 기타 홍보작업) | ☐ | ☐ |
| ③ 한양대 미팅제안편지 사건 대응 | ☐ | ☐ |
| ④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 결함 | ☐ | ☐ |
| ⑤ 페미니즘 캠프 주최 | ☐ | ☐ |
| ⑥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수요시위 주관, 정신대 문제 교양) | ☐ | ☐ |

10. 위의 9번 문항에 적은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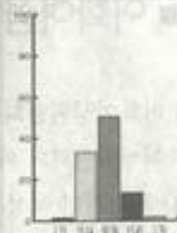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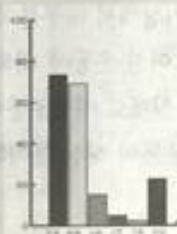
지난 한 학기 간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화인의 인지도는 2번 76.91%, 1번 76.15%, 3번 43.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1번과 2번이 각각 73.28%, 68.89%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난 한 학기간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화인의 인지도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11.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까?

- | | |
|------------------|------------------|
| ①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 ② 참여하고 싶다. |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12.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아쉽게 느껴지거나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주시요.

- | |
|--------------------------------------|
| ①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
| ② 학생회, 학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
| ③ 이화인과 함께 소통하고 평가하는 장이 더 필요하다. |
| ④ 이화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⑤ 더 다양한 여성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⑥ 기타 ()

12번 문항에 대해 3번으로 답한 사람이 61.64%, 4번 53.05%, 1번 51.5% 순으로 나타났다.

13. 이화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문제가 있다면 써 주십시오.

이 문항에 대한 대답으로는 금혼문제를 지적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여성운동, 여성운동가에 대한 편견, 교수와 학교의 권위주의 등이 있었다. 또 이화 안에서는 여성문제를 못느끼겠다는 답변도 상당수인데, 이것은 여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이화인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이화인이 이화여성위원회와 함께 소통하고 평가하는 장(場)의 필요성과 관심있는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홍보작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화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학에서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이화인 모두와 고민하고 함께 활동하는 이화여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여성 담론을 창출해내며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을 펼쳐 갈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여성을 사랑해요.
별 역할을 무시하는 곳이죠.
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구요.
원자격 조건이 없는, 자치단위랍니다.
단지 '여성' 이기만 하면 되죠.

photograph by 벨나

이화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화여성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2대 이화여성위원회 활동

- | | |
|-------|---|
| 96.12 | 2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획단 모집 |
| 97. 1 | 여성문화에 대한 자체 세미나 전개
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4자 테이블 구성 |
| 2 | 정신대 할머니 돕기 온거레 모금운동 참여
故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 및 항의 집회 참가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 전개 |
| 3 | 3·8 여성대회 참가
2회 페미니즘 문화제 자봉단 모집
2회 페미니즘 문화제 개최 |
| 4 | 학내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결함
1차 임시총회
신입위원 모집 |
| 5 |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한양대 미팅제안편지사건 대응
고대생 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화인 결의대회 주관
대동제 중 자치의 거리 활동
대동제 중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
| 6 | 자체 TS(Team Seminar)
이화를 고민한다 세미나팀 구성 및 모임전개 |
| 7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결함
정신대 문제에 대한 자체 교양
나눔의 집 방문 |
| 8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화인 교양
276차 수요시위 주관
1회 페미니즘 캠프 주최 |
| 9 | 이화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성위원회 대중평가 작업 및 선전
여성주의 매체지 '3차성징' 창간호 발간
2대 이화여성위원회 총회 |

Handwritten notes and diagrams illustrating the structure of a sentence, likely related to the example sentence "The cat sat on the mat." The notes include:

- 이 (I) - Subject
- 가 (possessive particle)
- 앉 (sit) - Verb
- 위 (on) - Preposition
- 마 (mat) - Object
- 에 (to/at) - Particle

The diagrams show the arrangement of these elements in a sentence structure, with arrows indicating the flow of information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s.

때 : 10월 1일 수요일 늦은 6시
 곳 : 기숙사열 가건물 이화여성위원회(360-3562) 방
 문의 : 015-8422-8501



이화이데올로기
전문직 여성에 대한 환상
화장에 얽힌 몇가지 이야기들
졸업사진 No.9
오늘 모델같다는 말을 들었다.
여대에서 미팅은 0순위?

낙서로 보는 이화인

(첫 번째 이야기, 이화)

재수까지 해서 어렵게 어렵게 대학에 왔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극단적 개인주의 뿐이다. 비오는 날 아무래도 불잡고 함께 막걸리라도 마실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고 싶다.

개인적으로 유아적인 반상으로 저혼자 편하게 잘먹고 잘살아 보겠다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대학인의 역할에는 관심두지 않고 남자 사기거나(특히, 서문대 연고대 총신)연애기, 학점관리에만 연연하며 사회운동이나 여성차별 철폐, 시민운동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논평하는 이화인이 너무나 많다. 여기는 이화금수학교가 아니다. 말그대로 대학. 무주적인 시야로 우리 이우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마음을 열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국문93')

▶ 인간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르다.

나는 이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화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어쩔는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욕먹는 걸까? 비박한 시선도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날로 떨어지는 듯한 이화의 위상...심각하다. 감지도 않은 대학생들이 우리를 무시하러 들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해서 최고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모든 이화인들이여 최선을 다합시다.

▶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이화인이 가끔 눈에 보인다. 어디 나가서 '이대생'임을 과시하며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사람. 한편으로는 그로록 자랑스러워 하는 이대생이라는 칭호를 비하하면서 말이다. 예를 들면 '이대... 뭐 별거아냐... 흥대 애들도 무림 우습게 본다고... 이제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공주병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신을 존중해 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다. (정외95')

▶ 애교심. 예,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인 우월의식에서 나온 배라적 집단주의라면 진정 부끄러운 일이 아닐런지요. (욕을 먹는거하고 최고가 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너무 소박한거지요?)

학교 수준부터 여기에 문제나라. 나는 공부하러 온 것인지 종종 혼란스럽다. 진한 화정에 화려한(다소 천박한) 옷차림. 수업시간에 앞에서 교수님이 계시면 말걸 때들어 대고 화장하고 먹고... 학교 커트라인이 작년엔 80점인데도 있다던데... 종종

▶ 완전 편견의 여왕이군. 사실 수업자세야 문제겠지만 이화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고 솔직 차림을 하겠냐? 넌 바보냐? 다 자기 표현이다. 네 편견이고 오만이고 한계야.

우리학교 학생들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다.

1) 긍정적인 의미의 이화인=진취적이고 자기 주장 강한 삶에 의무적인 당당한 여성. 2) 부정적인 의미의 이화인=결혼에 인생의 성공 실패를 걸고 허영심에 가득 차서 대중사는 그런 여자.

▶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런식의 태도는 자만의 태도가 잘난다는 것이다.

▶ 물론 그런식의 양분은 곤란하겠지만 솔직히 허영심에 가득차 학교에 왔다고 다하는 여자애들도 많다. 그러한 사치와 허영과 본분망각(학생이라는)을 가치관의 차이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치와 허영을 삶에 대한 진지한 열정도 다 놓아 여기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나는 이화를 사랑한다. ▶ 나도.

이화이데올로기

우리는 실제 이화인의 모습이 어떠냐와는 별도로 '이화'라는 이름에 가해지는 무수한 담론들의 이데올로기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시각을 획득해야만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이화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대" "이대생"

"이대에들? 화장하고 멋부리는 것만 잘하지 술적 허다 골빈애들 아냐?"

"난 이대에들 싫어.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콧대만 세다니까"

"너 이대생 맞아?"

"이대생은 말이지....."

"이대생은....."

이화에 쏟아지는 무수한 이야기들. 이제 '이대' '이대생'은 단순히 학교 이름이나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듯 하다. 그리고 이화인은 당연히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음을 열을 내며 주장하는 이화인도 있을 수 있고, '맞는 말이야. 솔직히 우리 학교 애들을 보면.' 하면서 자신은 철저히 타자화시킨 채 이에 대해 동조하는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이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각각의 반응의 차이를 떠나 이화인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 의식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화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들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화 이데올로기

이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화가 '여성' 집단이기 때문이다. 여성 집단이기에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시선들이 그대로 이화에 적용되는 것이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에게 의해 인식되어지고 성적 대상화 되어지며, 그들이 가치에 따라 정의내려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화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대학'으로 먼저 인식되어지기 보다는 그 이전에 '여성' 집단이라는 전제하에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얘기되어지는 이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사회에서 흔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인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치스럽고 허영에 많은 신경을 쓰는 여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 여기고 무시하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는 여성스럽지 못하다며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괴롭히며 '여성스러워' 질 것을 암암리에 강요한다. 즉, 사회는 여성에게 남성을 만족시켜 줄 성적 매력과 함께 적당한 정숙함과 품위, 지적 능력 등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다. 이는 이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성적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있는 이화인-분명 공부에는 관심없고 적당히 졸업장받고 결혼할 생각만 하는 여자'라는 식의 편견이 나오게 된다. 또한 여자들끼리 있으면 잘 못치지 못한다거나 뭔가 일이 안 될거라는 통념 역시 이화를 괴롭히며, 학교 앞에 옷가게만 즐비한 것은 여자이니 별 수 없이 공부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여기에서 상업 자본의 논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화를 시집 잘 가는 최고의 '신부양성소'로 보는 시각에 이르면 그 정도는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학은 대학이되 '여자' 대학이기에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되어지며, 이때 외부에서 이화에 적용하는 가치체계는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남성중심적 시각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화인이 사치스럽고 허영에 차 있는가 혹은 이대는 어쨌든 좋은 신부양성소인가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만오천 명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면 당연히 다양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를 어떤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해 내기는 불가능하다. 만오천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억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가치들은 결국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에게 의해 왜곡되고 비하된 여성상이기에, 어떤 식으로 말하든 결국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화인에게 가해지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대상을 바꾸어 남대생에게 적용시켜 보자. 가령 화려하고 성적매력이 넘치는 여



대생은 "무슨 학생이 저런 차림으로 공부를 해, 꼭 술집여자 차림을 하고는" 하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나, 그런 남대생은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때는 멋있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머리가 나쁠 것이라는 식의 편견을 받는 일도 없다. 남자가 도도한(?) 것은 자존심이 센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사나이의 자존심' 운운하며 남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미덕(?)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또한 공부에 관심없고 외모나 연애에만 관심있는 남대생을 결혼에 대학생활의 목적을 둔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도 없으며, '신랑양성소'라는 단어는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다.

즉, 같은 내용임에도 그것이 여성에게 적용되면 부정적인 가치가 첨가되며, 그 적용에 있

어서도 현 사회의 성불평등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화인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들로 이화를 이러저러하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화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데올로기를 사회불평등과 관련시켜 정의 내려보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필수적인 관념적, 실천적 형태로써, 종속 집단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화이데올로기라 함은 '남성중심적 사회구조가 이화에 대해 조장하는 왜곡된 가치 혹은 이미지의 총체와 이의 적용방식에 있어서의 성계급적 억압성'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 이화인의 모습이 어떠하나와는 별도로 이화에 대해 얘기되어지는 무수한 이야기들의 이데올로기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화이데올로기와 이화인

그렇다면 이화인은 과연 이런 시각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이화인 역시 사회의 부정적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화인 자신의 눈에 비친 이화인에는 사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이화인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이화인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이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스스로 보기에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과 같은 학교라는 사실과, 적어도 나나 내주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 등이 엇갈리면서 이화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그녀는 남성에 의해 이미 부정적으로 처리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이화인을 평가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외부의 이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에 대해 그녀 역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화인의 모습을 근거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화인 자신이 남성중심적 시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화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거나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지배구조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은 '여성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시각'은 성계급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에 의해 부정적으로 처리되고 비하된 시선이 아니라, 불평등적이고 억압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탈식민화'된 자신의 주체적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짚고자 했던 것은 실제 이화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물론 남성의 시각으로 이화를 보는 한 이화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는 불가능하지만)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물론 이화인은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모범적 대학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의 모습이 여성은 빠져버린 억압적 시선에 의해 평가되는 한 제대로 평가를 받기는 불가능하기에, 이화의 모습을 논하기에 앞서 이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의 주체적 시각을 찾아야만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이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 여성에 대한 환상

우리는 '이화'를 졸업한 후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사회속에 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기대한다.

하지만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를 기원 쉽지 않은 일이다.

TV 속의 그녀를 따라가기에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기만 한 것이다.

어제부터인가 TV 광고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은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부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지 않는 않는다. '일하는 여자는 아름답다'라는 카피가 유행어처럼 여러 사람의 입주위를 맴돌게 되었고, 그에 걸맞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들의 일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히 채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성공담 에세이의 반 이상은 투철한 프로의식으로 어떠한 장벽도 홀로 맞서 이겨낸 여성들의 화려한 후일담이다. 그렇다. 그녀는 아름답다. TV속, 책 속의 그녀들은.

졸업 후 직업이 없이 '꿈계 시집 가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화인은 없을 것이다.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4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사는 '이화의 딸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각자의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사회 속에 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무수한 억압의 굴레 역시 능력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당당히 물리칠 수 있을거야'라고 말하면서 약간의 흔들림마저 다잡는다. TV속, 책 속의 그녀들처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단단하기만 하다. 우선 취업시부터 여성 기피 현상이 현저하다. 여성 취업이 남성 영역의 침해로 해석되는 문화적 풍토 때문에 공개 채용 시험에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런 통념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라는 의식에서 기인한다.

대개 채용자측은 여성 채용 기피 이유를 한 마디로 '일 시키기 불편하다'고 표현한다. 남자라면 쉽게 명령할 수 있으나 여자에게는 말할 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과 단체 행동에 여자가 끼면 불편하다는 점을 들고 퇴근 후 술파식 등에서 서로 감정을 풀 필요가 있는데 여자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당직이나 출산의 경우에 일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불평과 더불어 결혼 후 '배불러 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다'든가 '집안일에 너무 신경 쓸 것이다' 등의 감정적 반응이다.

힘겹게 직장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 중심의 조직 체제 내에서 '주변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성 본위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피곤한 잔소리'로 치부되며 이러한 충돌은 여성을 '시끄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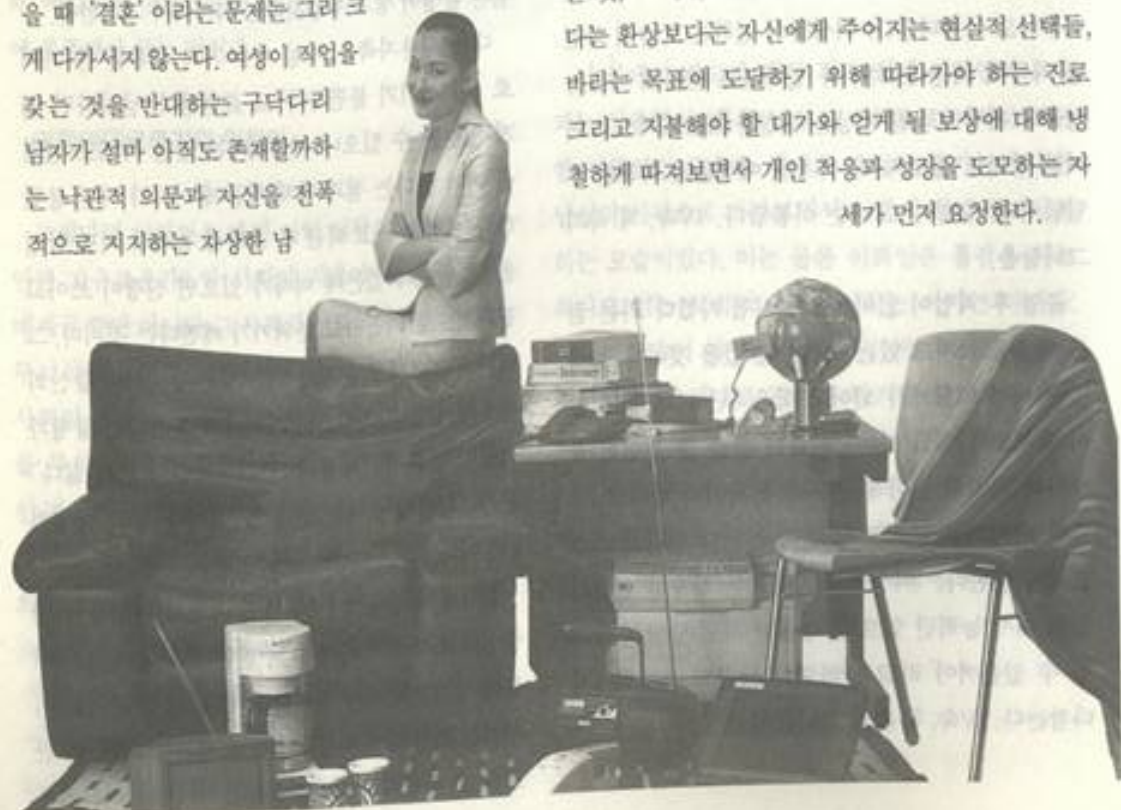
방해꾼'으로 낙인찍으며 남녀의 조화로운 협력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여성은 되도록 '눈에 띄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사무실의 꽃'인 그녀는 음흉한 눈길을 기꺼이 받아내고 남성들의 음담패설을 위트있게 받아치는 능력으로 사무실의 화기에(?)한 분위기를 절대 망치지 않는 성품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제 더이상 직업이 '자아실현의 장'이라고만 외칠 수는 없을 것 같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현실을 꾸역꾸역 감내하고 적응하며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는 '직장이냐, 가정이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고민하던 '양자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든 말이다.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결혼'이라는 문제는 그리 크게 다가서지 않는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구닥다리 남자가 설마 아직도 존재할까하는 낙관적 의문과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자상한 남

편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도만이 불안하게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무겁게 여성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다. 여성이 아무리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는 시선보다 '가정을 가진 여성'이라는 시선의 무게가 여성을 제약하고 억압한다. 따라서 여성은 성공적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조화시키는 슈퍼우먼의 길을 강요받게 된다.

사회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고 그 능력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논리들로부터 자유롭기에는 현실의 벽이 탄탄하기만 하다. 화면 가득히 채우는 여성들의 행복한 미소를 따라가기에는 말이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 사회 당당한 여성으로 설 수 있다는 환상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적 선택들,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따라가야 하는 진로 그리고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게 될 보상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보면서 개인 적응과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가 먼저 요청한다.



화장에 얽힌 몇가지 이야기들

흔히 화장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화장'을 여성의 개인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화장에 얽힌 사회적 함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여성들을 얽어매는지 논의해보았다.

- 화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지.
- 왜 화장을 하지 않냐고? 그냥.
- 개인의 자유잖아. 지 맘이지.
- 화장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화장하기 전처럼 상당히 달라 보여잖아. 변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
- 나는 화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화장한 사람을 보면 거부감만 생기고 믿음이 가질 않거든.
- 화장을 통해 개성을 표현한다고 봐. 내 얼굴을 내가 새롭게 하는 거잖아.

다. 왜냐하면 '얼굴'은 미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얼굴의 각 세세한 영역에까지 일정한 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만이 화장을 하고 있기에,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화장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화장에 얽힌 사회적 함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여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한다!

위의 말들은 화장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을 때 나온 대답들 중 몇 개를 두서 없이 적어 놓은 것이다. 꽤 다양한 의견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화장에 대해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장은 사적인 영역 구체적으로는 개개인의 얼굴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화장은 다른 꾸미기의 수단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회에서 얘기되어지며, 오히려 그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

흔히 화장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여성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존재한다.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은 예의가 없거나 여성스럽지 못한 여성이라고 매도되고 혹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인식된다.

이는 곧 여성이면 언제나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본인은 그럴 의도든 아니든,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 인식되는 점이다. 흔히 여성은 '나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화장을 남성에 게 여성이 예쁘게 보임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주기 위해 여성이 갖춰야 할 미덕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물, 남성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화장도 하지 않고 외모에 별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 '재도 여자'고 하거나, 늙은 아줌마나 할머니가 요란스럽게 화장을 하는 것은 '주책'이라고 여기는 것 역시 이런 사고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창 젊을 때 (아직 남성의 시선을 끌고 선택받을 수 있을 때) 멋도 내고 하는 거지. 다 늙어서 무슨'과 같은 말도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자기보다는 남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여성은 꼭 화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을 때에도 규제를

받는데 즉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은 '창녀'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여성은 '정숙'해야 한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언젠가 한 남성의 소유로 들어가게 될 일반 여성은 그 남성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창녀'나 '술집 여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만 한다.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분법적 사고가 화장을 둘러싸고도 나타나는 것이다. 짙은 화장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규제 속에서 화장이 여성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여성의 화장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말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시선, 사회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굴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문제를 좁혀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의 공식

각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지만 한 시대를 놓고 볼 때 일정한 미의 기준이 존재한다.



여성의 화장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말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시선, 사회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굴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 미의 기준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 주도권을 가진 사회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여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약자인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삶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화장을 하는 데에도 공식화된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눈은 되도록이면 크게 보이게 하고, 속눈썹은 인조 눈썹을 붙여서라도 길고 풍부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코도 오목하게 하고, 얼굴은 작고 하얗고 깨끗하게 조작하기.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화장을 하는 동안 굳이 남성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화장하는 방법과 추

구하는 아름다움의 상에는 이미 사회적 미의 공식이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화장 속의 자본주의

화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화장품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 화장품, 화장법의 유행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화장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남성 중심의 현실에서 여성의 미에 대한 인식은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자본이 만들어내는 미 또한 기존 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 여성의 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여러 틀을 더욱 공고히 만들기까지 한다. 여성이 미에 대해 절박하게 접착할수록 화

장품 산업의 가치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화장품 광고는 여성은 남성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아름다운 가장 효과적인 여성의 무기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여성'은 시선을 먹고 산다' 나 '운명을 바꾸는 색'이라는 광고카피만 봐도 '여성'의 대상화'라는 부분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본은 단순히 사회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공식을 따를 뿐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미의 공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화장품 광고를 통해 화장의 체계를 세우

고 화장법, 화장품의 유행을 만든다. 그리고 여성들은 정의되어진 '미의 공식'에 충실해야 함을 온 연중에 강요받게 된다.

즉, '예뻐져야 한다'는 기존 사회의 명제에 '이러저러한 화장품을 소비하면 예쁜 것이다'라는 또다른 명제가 덧붙여진 것이다.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화장품의 사용법으로 정의되고 규격화된다. 화장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여성 각자의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통념과 자본의 논리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화장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또한 남성의 시선, 사회의 시선에 의해 굴절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 화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적당히 하는' 것외에는 없다.



무거운 화장은 없다!



가벼운 두툼이 케이크 - 세레비오 엔시아

entia

CELUBO

THE NEW CASE



세레비오 엔시아

화장은 언제나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 화장을 입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부장제 질서와 그리고 가치 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한 데 묶여 얼굴 위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즈음까지 생각이 진전되고 보면 여성이 화장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이 회의적으로 머리속을 맴돌게 된다.

졸업사진 No.9

"나는 오늘 모델같다는 말을 들었다"

여대의 졸업사진 문화는 유명하다. 단순히 기념으로 남을 '졸업사진'이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며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사회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질서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보편화된 졸업사진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적인 질서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문제제기할 때이다.

이상한 일을 보았다. 4학년 졸업을 앞 둔 언니들이 눈부시게 화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머리 한 번 빗은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깔끔하게 세팅한 머리와 정장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메이크업 해준다는 광고가 시선에 들어왔고 누군가 내 옆에서 '이러니까 학교 앞 맞춤복 가게들이 떼돈을 벌지' 하고 혼자 말을 했다.

졸업사진 때문이란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다. '잘 나오고 싶겠지' 하고 재미있어 했다.

그런데 한숨쉬던 누님들이 들려왔다.

'메이크업 하고 머리하는데 일이십만원 드는데..... 옷값만 해도..... 돈이 모자라네.....'

몇년전 사치스런 이화인이라고 사진을 실어 문제가 된 뉴스워치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졸업사진을 찍을 즈음 학교를 모델처럼 걸어다니는 선배 언니들. 이러한 졸업사진 문화는 이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대에서 졸업사진을 찍을 때면 평소와 전혀 다른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언젠가 과사무실 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졸업사진을 본 적이 있다. 모두 세팅한 머리모양새와 정장 차림이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라기 보다는 상업광고의 모델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을 볼 때 마담뽕들의 손에 졸업앨범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저 예뻐 보이고 싶어서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앨범인데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

예쁨의 문제. 대학에 들어 온 이후 참 많은 문제들이 예뻐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화인들은, 여대의 학생들은 언제나 예뻐고 예뻐야했다. 들어올 때는 수수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다들 멋쟁이가 되어서 나간다는 말들도 많이 들었다. 대학 들어와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화사하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패션에 신경을 안 쓰려 해도



안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울 속에서 자신이 예쁠 때 당당하게 되는 현실,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모든 여성들에게 강박관념을 넘어서 억압으로 다가오는 사회이다. 그 모습이 졸업사진 속에서까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 사회 속에서 여성의 주요 평가 기준은 외모이다. 여성은 우선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써 바라보는 인식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외모는 단순히 심리적 만족이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생존 무기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외의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단은 예뻐야 한다. 여성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보다는 남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율성이 부정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 사이를 자본이 침투한다. 여성의 외모와 아름다움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예뻐야 한다는 말을 우리 귀에 속삭이며 여러 상품을 눈 앞에 펼쳐 놓는다. 아름다움은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광고와 대중매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에 의해 규격화된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품들을 소비해야 한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위해 들인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 아름다운 외모의 정의 자체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몇십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혀 있기에, 또 그 인식이 틀리지 않는 현실이기에 여대생들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면 미용실과 의상실에 거액의 돈을 끊임없이 바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뻐이 세수 한 번 하고 머리 한 번 감으면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여대의 졸업사진 문화가 문제시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졸업 사진 속의 모습이 실제 대학에서의 모습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졸업사진 No.9
"나는 오늘 모델같은 말을 들었다"

졸업 사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4년 동안 자신의 삶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기록이고 흔적일테니.

하지만 이런 졸업 사진들 속 어디쯤 그들이 담겨있나, 보이지 않는다. 평소 학교에서 보았던 그들의 모습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들의 또다른 진실한 모습과도 관계가 없다. 졸업 사진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 날 하루를 위해 한 머리와 그날 하루를 위해 한 화장, 그 날 하루를 위해 한 옷들. 그런 자본 속에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허상으로 보일 뿐이다. 졸업사진 속의 모습은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가공의 자신을 졸업 앨범에서 발견하는 기분은 쓸쓸할지도 모른다. 예뻐지는 모르지만 현실과 다른 그 사진들을 앞에 두고 예는 이런 아이이고 재는 저런 아이였다는 추억마저 가능할런지.....

사실 이러한 졸업사진 문화가 옳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예쁜 사진을 위해 돈을 들여 치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진을 원하지 않는 이화인들, 그 때 드는 돈이 아깝고 버거운 이화인들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막상 졸업사진을 찍을 때에는 불평을 하면서도 다들 남들만큼은 차려 입고 오게 된다. 졸업사진 때의 꾸미기는 너무나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졸업사진 문화는 여성의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회와 자본의 논리가 상호연결되어 만들어 낸 이미 하나의 '문화'이다. 문화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무리하게 치장한 허상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 이화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그러한 일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 원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졸업사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여대에서 미팅은 0순위?

누군가 미팅에 뭐 그리 복잡하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고 비판하려 든다면, 그 사람이 야말로 오히려 인간의 만남을 단순히 일회적인 것으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무심코 넘겨 버리기 쉬운 '미팅'에 관하여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팅은 이화 새내기 0순위?

"대학까지 여대라니... 난 기대 같은 것 없어. 그냥 공부만 하지 뭐"

"미팅으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지 뭐"

이제 막 '대학'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새내기에게 있어 '대학'은 낯설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호기심을 안겨다 주는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이화'는 남자가 없다는 특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남다른 색깔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화 새내기들은 남녀 공학에서의 막연한 낭만적 만남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초부터 대학 생활에 대하여 그다지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새내기들은 차선의 방법(?)으로 '미팅'이라는 것을 통하여 대학의 낭만(?)을 다소나마 느끼려 한다. 미팅 건수를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 다니고, 미팅 몇 번 했다는 자랑으로 얘기하는 등 확실히 미팅은 새내기들에게 있어 대학 생활 초반의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여대는 정말 재미가 없다?

남녀 공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가 댄스는 아주 진지하게 묻는다.

"넌 남자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대학을 다니냐"고.

'여대는 재미없다'는 생각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여대생이 많음에도 흔히 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다. 남녀 공학을 다니는 학생은 물론 여대를 다니는 일부 학생들조차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남녀 공학의 대학문화에 대한 환상이다. 어렸을 때부터 대중매체와 주위의 이야기들 속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대학문화에 대한 환상이 상대적으로 여대를 재미없어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자들끼리 있으면 재미 없고 대학문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동침문화가 형성될 수 없다는 통념일 것이다.

자라오면서 여성은 끊임없이 그 존재 의미를 남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교육되어진다. 반면에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남아들과 집단을 형성하고 어울릴 기회를 많이 제공받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고무되

어진다. 그리고 더 커서는 이미 가부장제의 역사속에서 관습화된 남성들만의 연대문화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문화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 문화에 동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성은 '불완전'하며 그러므로 잘 못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대가 재미없으리란 생각 역시 그 저변에는 '여자끼리는 잘 못치지 못하니까 재미 없다'라는 전제와 여자들로만 이루어지는 문화는 비생산적인 일종의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고방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답습한 통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통념들은 이화내에서의 진정한 연대 문화 형성을 어렵게 한다.

미팅은 남,여의 건전한 만남의 장(?)

미팅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극단적인 대비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되기 위해서는 친구들 사이의 경쟁심은 자연히

유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심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사회의 성차별적 편견들)을 더욱 부추기게 한다.

흔히들 이화인들은 미팅을 통하여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남학생들을 만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교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단순히 하루를 즐기려는, 혹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해 'S대 미팅제한염서사건'이나 최근의 'H대 미팅제한편지사건'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는 이화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성희롱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이화로 대표되는 여성들을 이미 성적(性的) 대상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함을 알게 된다. 이처럼 여성을 성적(性的) 대상으로만 여기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성희롱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과의 미팅은 그것을 발전적인 만남의 기회로 삼으려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환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여성을 성적(性的) 대상으로만 여기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성희롱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과의 미팅은 그것을 발전적인 만남의 기회로 삼으려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환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여성교육이란?

금혼학칙 철폐를 요구하며

이화여성위원회

제5장 입학 편입학 및 등록

제13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미혼여자라야 한다.

제8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및 재입학

제28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만료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신고 없이 3주일 이상을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결혼한 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에서

이해초 학보의 여론광장에 이화의 금혼제로 인해 입학할 허가받지 못했던 한 기혼여성의 글이 부고된 적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 여성은 그녀가 가고자 하는 초등교육학과가 이화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화에 입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화의 입학자격이 미혼여성으로 제한된 까닭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보를 통해 하소연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금혼제도로 인하여, 이화

의 입학자격이 미혼여성으로 제한된 까닭에 이미 결혼한 여성들은 이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 땅의 여성교육의 산실로서, 여성학의 메카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화가 기혼여성들의 교육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은가?

이화에서 처음 금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한국여성교육에 있어서 진보적인 행동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반란, 바로 그것이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시집을 가기 위한 준비, 착한 아내



로서 어머니로서의 살림살이 연습이 전부였던 시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 시집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전부이고 또 전부이어야 했던 시절에 여성들에게 '공부'라는 걸 시키기 위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 붙들어 둔다는 것이 얼마나 전복적인 일이었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그 시대 이화의 결단에 얼마든지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금혼제도의 폐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금혼제도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이 여성에게 더이상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다. 처음 이땅에서 한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이화가 만오천의 여성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중한 여성들의 공간인 여대가 이화 바깥 다른 곳에도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무거운 짐은 여성들의 삶을 '그녀 자신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기제로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결혼에 대해 존재하는 막연한 환상들, 이를테면 민주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에 대한 낭만적인 자신감 등을 가지고 섰을 리 결혼이라는 관계에 들어갔을 때 맞게 되는 억압적인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쉽게 '그녀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을 들어 이화에서 금혼제도가 존재해야 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그. 러. 나.

우리는 지금, 1997년의 이화에 한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과연 지금의 이화에 있어서 진정한 여성교육의 의미란 무엇인가?

얼마전 가건물 액뎀이방의 벽이 외부인에 의하여 찢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밤사이에 동아리 인들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다만 외부인에 의하여 벌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학교측의 대응은 '위험하니 학교에 10시 이후로는 남아있지



말 것. 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경비를 강화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액택이방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은 21세기 발전기획안을 이야기하는 현재 이화의 여성교육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누군가에게 좋지않은 상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데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쫓겨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신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화를 졸업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결혼’을 할 것이다. 아마도 이화를 졸업한 여성들 중 결혼한 대다수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녀들을 ‘그녀 자신의 삶’ 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억압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21세기를 이룰 전 문적여성이건 그렇지 않은 간에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재학중 결혼을 금하는 학칙이 궁극적으로 21세기 발전 기획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화가

진정한 여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혼’이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이므로 무조건 막는 것이 그것인가?

어쩌면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서도 학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그 의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결혼은 학생의 자율에 맡기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결혼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결혼에 있어서 맞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환상이 아닌 진지한 고민들로 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결혼을 했을 때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재학 중에 결혼을 하건 혹은 이미 결혼을 하고 들어오던 간에 여성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여성교육의 산실이며 앞으로 21세기 발전 기획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화가

학생들이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화는 이제껏 학생들의 자율권을 강제하고 보호하는 소극적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지금의 이화가 해야하는 일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여성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지금 해야할 일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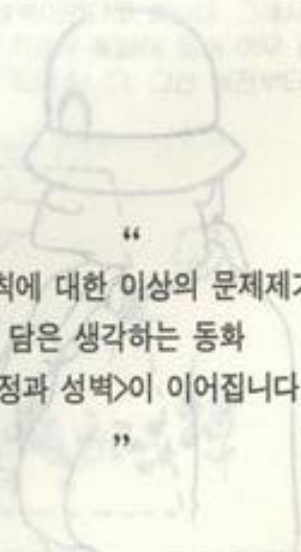
당장 대학원 학생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아소 시설하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성교육을 이야기하고, 결혼이 여성의, 교육을 막고 있는 현실에 반하여 금혼제도 가 존속하고 있는 이화에서 말이다.

학생들이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화는 이제껏 학생들의 자율권을 강제하고 보호하는 소극적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지금의 이화가 해야하는 일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여성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이화는 명실상부하게 이땅의 여성교육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만오천이라는 여성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최대의 교육기관이다. 이는 단순히 수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얼마 안되는 여성공간을

생각해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나누어지는 공간으로 이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진정으로 여성들에게 진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하여 모아진 큰 힘을 사회로 강제해 나가는 이화의 모습을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는 이화안에서 꿈꾸어 본다.

“
금혼학칙에 대한 이상의 문제제기를
담은 생각하는 동화
〈병정과 성벽〉이 이어집니다
”



병정과 성벽

글 / 류라 (이화여성위원회 96)
그림 / 불 (이화여성위원회 95)

옛날, 어느 나라에 매일 아무
할 일 없이 꽃밭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걷기를 반복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한 소녀가 매우 이상하게 여
겨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꽃밭을 매일 걸어 다녀요?"
"나도 몰라. 명령이니까 따르는 것 뿐이
야. 이 꽃밭 주위를 걸어다니는 게 법이
거든."



3차성징 이후 귀한 법

(이화여성위원회 96)
(이화여성위원회 95)

(이화여성위원회 96)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
되었습니다.
"꽃밭 주위를 걸어다니는 게 왜 법일까?
오히려 저 아저씨 때문에 꽃밭 구경하는
게 방해가 될 뿐인데."



알고 보니 그 꽃밭이 있는 자리는 예전에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문을 지키는 병사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꽃밭이 되어 아무 필요
도 없는 그 곳을 병사가 매일 지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법
이었으니까요.



함께 하는 우리

동이 (정화, 특교97)

라기 (은아, 신방96)

랄라 (은영, 특교97)

모기 (현수, 약학94)

별나 (현실, 고공96)

뽕 (희정, 의직95)

비비 (세영, 사과97)

사과 (연수, 전자공96)

쌀 (경창, 의직96)

아이 (보미, 사과97)

여울엄마 (여울, 전산94)

원더 (선영, 통계96)

이티 (경희, 인문97)

체크 (소영, 인문97)

카람 (일억, 전자공96)

큐라 (지연, 국문96)

큰님 (정민, 교육95)

함께 해 준 사람들

꿀라 (미웅, 법학96)

당근 (미설, 철학96)

라니 (정란, 법학95)

우주 (은주, 행정95)

하람 (지윤, 전산95)

늘 곁에 있는 사람

은초 짜투리

3차성징

3차성징 (三次性徵)

동물 중에서도 '여성(♀)'이라고 이름지어진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징후로,

세상을 그들(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슷한 말 : Feminist로 다시 태어나기

※ 참고

- 3차성징의 시기는 연령이나 성장속도와 관련없다.
-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의 고통을 수반한다.

정지적으로 올바른 여성백과사전 안에서

격려의 말

여성위원회가 이화에 그 모습을 드러낸지도 벌써 2년, 이제 3대 이화여성위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여성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의 치기어린 열정으로 시작한 여성위원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 문제의식과 발빠른 활동력으로 활기넘치는 여성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여성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1대 이화여성위원회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쉽게 지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문제에는 당연한 듯 대처할 수 있지만, 삶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일상의 문제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기게 된다.

사회의 여성이슈와 이화를 연결하는 매개고리의 역할과 더불어 여성들이 처하는 일상의 문제를 공공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이화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여성위원회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지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함께 할 많은 이화인과 여성들의 힘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화여성위원회 화이팅!

조김혜련(1대 이화여성위원회 위원장, 본교 여성학과석사과정1학기)

저희 고대 여학생위원회와 이대 여성위원회는 올해 이화대동제의 고대생집단성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오면서, 대학사회 또한 답습하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활동들을 벌여내었습니다. 올해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대와 고대 여학생운동단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를 대중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2대 이화여성위원회의 총회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올해의 활동들을 계기로 하여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연대해서 힘차게 펼쳐내었으면 합니다.

최선영(5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성위원회의 활동은 그 어느 학생 자치기구의 활동보다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위원들의 결집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결집력의 바탕에는 아직도 만연한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이라는 상황과 또한 2만명이나 되는 여성들만의 대학공간이 놓여 있음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화여대 학생회는 여대생들의 세상읽기를 하나의 관(觀)으로 결집해내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하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집을 지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학생운동의 특성상 학생회가 이러한 모습을 견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여성위원회가 그러한 독특한 작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활동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김혜숙(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교수모임 대표, 본교 철학과 교수)

텍시 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을 비판하여 자살한 여학생의 사건과, 이를 보도하는 기자의 어처구니없는 기사 멘트를 접하면서, 우리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위로서 다시금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그녀와 같은 여성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더욱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힘겹고 지난한 싸움을 함께 가져나가야 하는 동지로서 이화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김인영(12대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편집후기



큐라와 별나가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여울 언니의 뛰어난 연기력(편집을 맡아 달라고 말할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란...)

큐라와 별나가 편집을 하면서 얻은 것

따뜻한 밥, 꿀맛 잠, 바른 생활

큐라와 별나가 편집을 하면서 얻은 것

늘어만 가는 오락 실력, 장난 아닌 식욕.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초연하게 감내해 내는 느긋함(α 뻔뻔스러움).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우리...

큐라와 별나가 꼭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동안의 타락한 생활을 '사랑'이라는 말로 무마하려고 하는 철면피 큐라 and 별나)

97. 9월 어떤날

시애틀에서 큐 and 별

덧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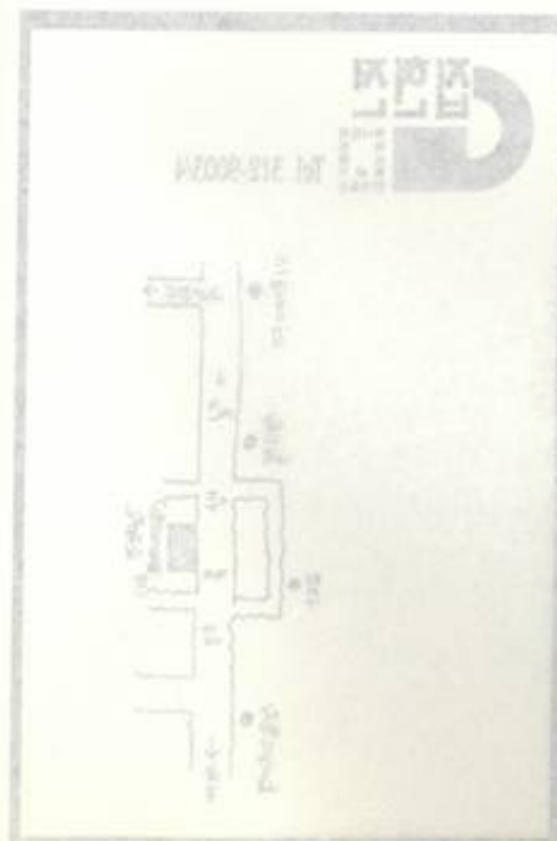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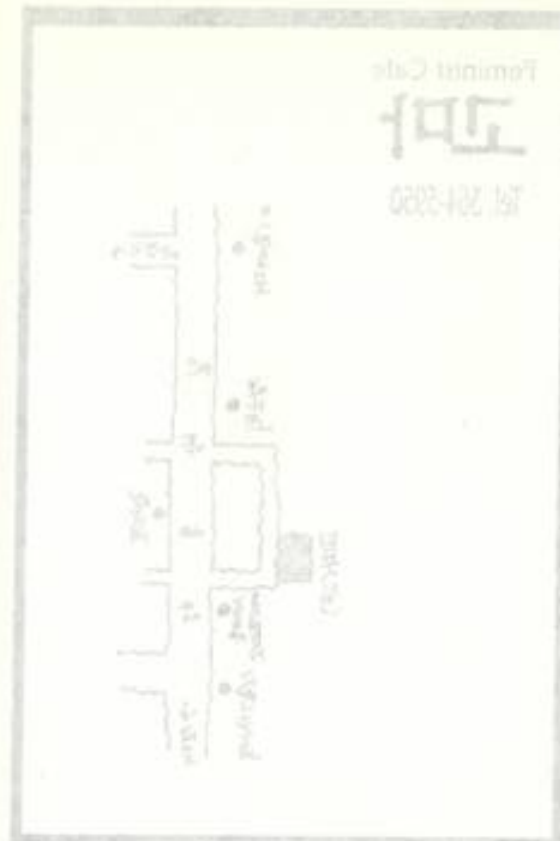
Q: 근데, 나 또 하고 싶은 말 있는데...

☆: 원데?

Q: 별나야, 고마워...

☆: ...나도...

Q and ☆: 감동~~~~~(주르륵:)



THE X DIVISION



언제나 못 잡힌

이화여자대학교



3차성징 No.01

발행인 / 조이여울(전산 94)

편집위원 / 최소현실(교공 96), 손안지연(국문 96)

발행일 / 1997년 9월

펴낸곳 / 이화여성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360-3562(이화여성위원회)

디자인 / 에스사단 TEL 338-9668 FAX 338-3917

THE (X) DIVISION



편집 및 디자인

이제 엑스사단과 만나십시오

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고정지에서 팔름까지 수거 및 배달 서비스!!

7600 · 7200 및 고가종 매킨토시 및

높은 메모리.

다량의 서체지원.

성능 좋은 레이저 프린터 및 스캐너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한

Know-how를 가진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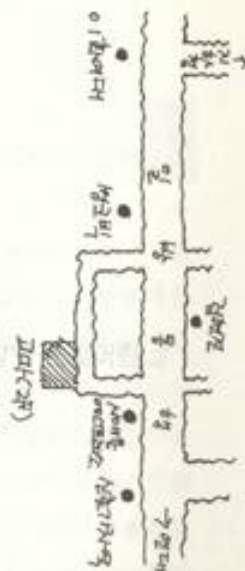
서교동 383-1 TEL 338-9668 FAX 338-3917 chol: J7010

교지, 카다록, 단행본, 학습지, 브로슈어, 사보, 신문, 잡지 등

Feminist Cafe

고마

Tel. 364-5950



집현전

Tel. 312-9003/4

